

6월 Market Index			
↓ 코스피	6296.38 (-301.88)	↑ 코스닥	801.67 (+2.08)
↑ 금리 (미국 9월)	3.742 (+0.073)	↑ 환율 (원-달러)	1429.10 (+4.60)

그린벨트 해제지 어디? 내곡·태릉CC 등 촉각

주택 공급대책 발표 임박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에선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 유희부지, 공공부지 등을 총동원해 공급 물량을 늘릴 것으로 예상한다.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일대와 강남구 세곡·자곡동(미개발지), 송파구 방이동 일대(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주변), 태릉골프장(태릉CC) 등이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서울에 새로운 택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주택을 어디에,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가 문제다”라고 언급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필요하면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그린벨트 면적 서울의 25% 내곡동·강남, 방이동·잠실 입지 태릉CC, 동북권 대규모 공급 가능

그린벨트 해제 실효성 향상 위해 토지보상·주변영향 등도 살펴야

서울의 그린벨트 면적은 약 149.09㎢로 서울 전체 면적의 24.6%를 차지한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약 23.9㎢로 가장 넓고 강서구와 노원구, 은평구 등이 뒤를 잇는다. 그러나 강북권은 산지가 많고, 강서권은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 등의 영향을 받는다. 시장에서는 비교적 평지가 많고 주택 수요가 높은 강남권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일대는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과 가까워 강남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 당시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한 내곡보급지주택지구(가)가 있어 택지 개발 경험도 있다. 세곡·



국토교통부가 우면동 일대를 ‘서울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 송동마을 일대 모습. /뉴시스

자곡동 역시 기존 보급지리주택지구와 인접해 있다. 주변에 강남·세곡지구아파트가 이미 조성돼 있고 수서역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위례신사선 등 교통망을 활용할 수도 있다. 송파구 방이동 일대도 잠실과 인접해 입지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태릉CC는 과거에도 후보지로 검토됐던 곳이다. 서울 동북권에서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곳이다.

현지 시장의 반응은 아직 조용한 편이다.

송파구 방이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6일 “토지 소유자들은 언젠가는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에 차 있지만 최근 들어 관심이나 문의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초구 서리풀1지구는 2024년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 지난 2월 지구 지정을 마쳤다. 총 1만8000가구 규모로 첫 분양 목표는 2029년이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토지 보상과 수용 방식, 마을 존치 여부를 둘러싼 주민 반발이 변수로 남아 있다. 그린벨트 지역에는 오랫동안 거주해 온 주민과 영농인, 여러 명의 토지 소유자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입지와 공급 규모뿐 아니라 토지 보상과 주변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송승헌 도시와경제 대표는 “강남권 수요를 일부 분산하고 공급에 대한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긍정적”이라면서 “얼마나 핵심지와 가까운지, 또 해당 부지에서 얼마나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선 이번 정부의 공급대책이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도심 내 용산어린이정원 등 유희부지와 용산역 일대 정비사업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 1월 도심 내 우수 입자의 유희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에서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용산은 이번 공급대책의 핵심 축으로 꼽힌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기존 개발사업에 더해 용산어린이정원과 같은 국유·공공부지의 추가 활용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조율도 관심사다. 공급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metroseoul.co.kr



삼성전자 ‘갤럭시 Z 시리즈’ 공식 출시

삼성전자는 오는 7일부터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를 국내에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삼성전자

김정관 “주52시간제, N% 성과급 반대”

산업장관, 관훈토론회 “일하려는 의지, 제도가 막아선 안돼 중, 상상 초월하는 속도로 달리는 중”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사진)이 반도체 연구개발(R&D) 및 스타트업 등 산업 전반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노동계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와 노란봉투법 도입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에 대해 강한 경계감을 표명했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일하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막아서는 안 된다”며 “기업과 나라의 경쟁력은 국의 경쟁자와 비교해야 하는데, 우리의 가장 큰 경



쟁 상대인 중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하겠다는 사람의 지킴이선 안돼…노동 유연성 확보 시급”

김 장관은 최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도체특별법 내 R&D 인력 대상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이 빠진 점을 언급하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IT 기업 방문 당시 주 6일·12시간 근로 방식인 ‘996 제도’조차 근로자들이 스스로 회사 경쟁력이 떨어지면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모순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주52시간제 이슈를 단지 기존 노동계의 시각이나 청년 이슈로만 치환하면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정부가 최소한 열심히 일해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욕을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되며, 스타트업과 청년 경영진 모두에게 노동 유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는 “기업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불확실성”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현장의 해석상 혼선을 줄이고 법적 쟁점을 명확히 가르마타 주겠다”고 말했다.

<4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삼성, 4나노 캐파 품귀… ‘5나노 공정’ 대안 제시

차량용AP ‘돌핀’ 5나노 기반 개발 4나노 대기수요 흡수… 고객층 확장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파운드리 업계의 생산능력 확보 경쟁이 거세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2세대 2나노 양산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4나노 공정 캐파가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업계에서는 5나노 공정을 활용한 고객 확보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4나노 공정은 내년까지 생산능력이 대부분 채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4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에 적용되는 로직 베이스다이와 미국 AI 반도체 기업 그록(Grok)의 언어처리장치(LPU) 물

량이 늘면서 가동률이 빠르게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삼성전자는 4나노 공급을 기다리기 어려운 신규 고객에게 5나노 공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비용 부담과 공급 일정 등을 고려하는 일부 팹리스에는 5나노가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나노 공정은 차량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 텔레칩스는 차세대 차량용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돌핀’을 삼성전자 5나노 공정 기반으로 개발 중이다. 최근에는 해외 팹리스를 중심으로 서버용 칩과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을 위한 5나노 공정 문의도 늘어난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의 5나노 활용이 선단공정 전략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 2세대 2나노 모바일 제품 양산을 확대하고 AI·고성능컴퓨팅(HPC) 고객 수주를 늘릴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2나노에서는 고성능 고객을 확보하고 5나노에서는 4나노 대기 수요와 중소형 팹리스 물량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공정별 고객층을 넓히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미국 테일러 공장도 생산능력 확대의 주요 변수다. 삼성전자는 내년 본격 양산을 목표로 미국 현지 생산과 메모리·파운드리·첨단패키징을 결합한 탄력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2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



▲ 유승민 “李정부 ‘닥치고 세금’ 들고나와…주가 띄우기에만 정신 팔려” /사진 뉴시스
▲ “돌려차기 망인” 논란 서범수·진중호, 결국 윤리위 ‘징계’로

▲ 이상호 “조정식 발언으로 개헌 물건너가…연임 불가능 알면서 공격”
▲ 군, 오늘 독도 인근서 올해 첫 동해영토수호 훈련

▲ “노태우 묘역 참배 고민” 보훈장관, 국민정서 고려 참배 않기로
▲ 수사·기소 분리 뒤 합수본 운명은…행안부 “공중경”, 법무부 “근거 없다”

봉화 K-베트남 벨리, 관광지 조성 등 3500억 특화사업 본궤도

중기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주택공급 등 관련 제도적 제약 완화
노용석 차관 “성과중심 운영·관리”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재 약 3500억원을 투입해 경북 봉화군이 추진하고 있는 ‘K-베트남 벨리’에 힘을 실어줬다.

중기부는 6일 제6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경북 봉화군의 ‘봉화 K-베트남 벨리특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봉화 K-베트남 벨리특구’는 한·베 800년 교류 역사를 활용한 사업으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비 1051억원, 도비 277억원, 군비 1701억원, 민자 447억원 등 총 347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이미 1127억원이 쓰였다.

이를 통해 ▲리왕조 역사교육, 한·베 문화교류 거점, 베트남 이주민 정착지원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이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SVC 서울에서 열린 ‘2026년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K-베트남 벨리 조성 ▲한·베 문화교류 복합공간, 베트남 테마 관광명소 조성 등 창평저수지 주변 관광개발 ▲봉화 3대 청정약수 체험 및 자연경관 연계 휴양공간 운영 등 다덕약수관광지 조성 등 8개

특화 사업을 진행한다.

아울러 출입국관리 특혜(출입국관리법),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외(지방재정법), 주택공급 기준 완화(주택법) 등 10개 규제특례도 적용해 외국인 종사자의

체류, 토지이용, 주택공급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도적 제약도 완화한다.

봉화군에 따르면 베트남 리 왕조 6대 황제의 아들이자 화산이씨(花山 李氏)성을 가진 이용상의 후손들이 경북 봉화군에 정착하며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봉화군에는 충효당을 비롯한 유허비, 재실 등 베트남 최초 독립왕조인 리 왕조(1009~1225년) 유적지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다. 1226년 고려에 정착했던 이용상의 화산 이씨 후손들은 현재 약 1200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봉화 K-베트남 벨리특구는 한·베 800년 교류라는 고유한 역사자원을 문화·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성과 중심의 운영·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구위원회에서는 지역특화

발전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먼저 경남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는 일부 지구의 사업자 변경과 조성공사 재개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지정기간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한다. 내산지구와 양촌·용정지구 등의 투자계획을 반영해 총 사업비를 9453억원에서 1조3706억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활용계획이 없는 규제특례(4건)는 해제했다.

이와 함께 특화사업 완료나 운영여건 변화 등에 따라 관할 지방정부가 신청한 ▲부산 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경남진 장흥 토요시장·생약초·한우 특구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등 4곳의 지정해제도 의결했다. 각 지방정부는 특구 해제 이후에도 필요한 사업을 자체사업이나 관련 정책과 연계해 이어갈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6월 경상수지 흑자 497.3억달러 ‘역대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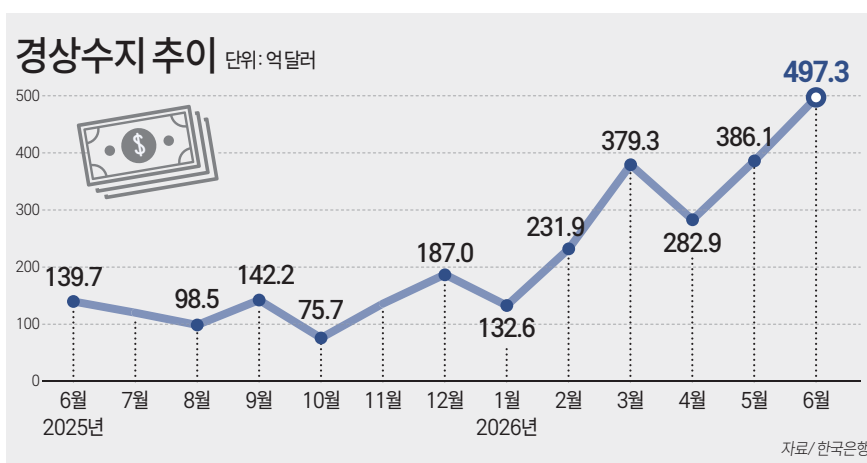
전년 대비 반도체 수출 196.9% 급증
상반기 누적 흑자 1910억1000만 弗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196.9% 급증하면서 지난 6월 경상수지 흑자가 497억 3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사상 처음 1000억달러를 넘어섰지만 외국인은 차익 실현에 나서 국내 주식을 역대 최대인 316억 1000만달러 순매도했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 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5월의 386억 1000만달러보다 111억 2000만달러 늘면서 두 달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6월보다는 357억 6000만달러 확대됐다.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 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78억 7000만달러보다 약 4배로 늘었다.

경상수지 흑자 확대는 상품수지가 이끌었다. 상품수지 흑자는 478억 9000만달러로 전월의 378억 6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 7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84.5% 증가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통관 기준 수출도 1021억 7000만달러로 70.7% 늘었다. 국제수지상 수출입은 소유권 변동을 기준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통관 기준과 금액에 차이가 난다.

수출 증가세는 정보기술(IT)과 비IT 품목에서 모두 나타났다. 통관 기준 IT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160.4% 증가했다. 컴퓨터 주변기기 가운데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가 282.7%, 반도체가 196.9%,

무선통신기기가 60.6% 늘었다. 비IT 수출도 석유제품과 화공품, 철강제품, 승용차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상품수입은 644억 8000만달러로 38.6% 증가했다. 원자재가 30.5%, 자본재가 35.3%, 소비재가 16.4% 늘었다. 원유 수입액은 도입 단가 상승으로 50.3% 증가했지만 도입 물량은 12.6% 감소했다.

서비스수지는 12억 9000만달러 적자로 전월보다 적자 폭이 2억달러 커졌다. 여행수지는 방한 외국인이 늘고 유류할증료 인상 등의 영향으로 출국자가 줄면서 4억

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여행수입은 역대 최대였고 여행수지 흑자 규모는 역대 두 번째였다. 반면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는 전월의 정산 집중 효과가 사라지며 4억 4000만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기타 사업서비스도 15억 9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수지 흑자가 25억 6000만달러로 확대된 데 힘입어 32억 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467억 1000만달러 늘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나타냈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는 263억 2000만달러 감소해 역대 두 번째로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특히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는 차익 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 1000만달러 줄어 사상 최대 순매도를 기록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채성증권 투자는 세계국제지수(WGBI) 관련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 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52억 9000만달러에 그쳤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35억 6000만달러 증가했다. 해외주식 투자는 75억 3000만달러 늘었지만 부채성증권 투자는 매파적인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로 연내 금리 인상 기대가 커지며 39억 8000만달러 감소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공정위, 76조 국고채 담합 적발… 금융사 15곳 제재 수준

10개 증권사·5개 은행 대상

국가재정 자금 조달과 시중 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고채 입찰에서 약 76조 원 규모의 담합이 적발돼 대형 증권사와 은행 15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오른다.

공정위 사무처는 15개 국고채 전분달러(PD) 사업자들의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년 2월 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6일 밝혔다.

담합 의혹을 받는 피심인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NH투자·KB·한국투자·키움증권 등 10개 증권사와 국민·농협·중소기업·하나·한국산업은행 등 5개 은행이다.

공정위 심사관에 따르면, 이들 15개 금융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입찰 가격과 물량 등을 사전 모의하는 입찰 담합 및 정보교환 담합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담합행위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약 76조 2000억 원에 이른다.

국고채는 국가재정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 시중 자금 사정을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재정경제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사를 국고채 전문딜러(PD)로 지정해 입찰 독점 권한과 함께 유통시장 호가 제시 등 시장 조성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025년 말 기준 PD사는 18개사로 이 가운데 3개 사는

담합 증거가 없어 이번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의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 및 정보교환담합을 위반한 ‘배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법령상 최대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인 15조원에 달할 수 있다. 심사관은 아울러 담합에 가담한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에게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들 금융사들이 단순한 정보 공유 수준을 넘어 입찰 담합을 벌인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관은 피심인들 간 관행적 소통이라고 볼 수 없는 투찰, 금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담합과 정보 교환이 이뤄졌다는 입장”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찰 담합이 추가 돼 있는 사건이라서 그냥 단순한 정보 교환 사건과는 본질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과징금 수준과 관련해 “구체적인 조치 수준은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면서도 “재정경제부도 입찰 담합 방지 필요성에 대해 공정위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고, 다만,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국제시장에서 PD제도의 중요성, 공정위 제재의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구체적인 제재 수준도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중국·인도계 팹리스 등 삼성 5나노 공정 검토

TSMC 공급 부족 등 기회 작용

TSMC의 첨단공정 공급 부족도 삼성 전자에는 기회 요인으로 거론된다. TSMC의 3·4·5나노 생산라인이 빠르게 채워지면서 중국과 인도계 팹리스를 비롯해 공급 일정을 중시하는 고객들이 삼성전자 5나노 공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TSMC는 AI 반도체 주문에 대응해 2나노와 3나노 생산능력을 동시에 확대하고 있다. 3나노 월 생산능력은 올해 상반기 15만장에서 4분기 18만장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2나노 생산능력도 상반기 월 5만~6만장에서 연말 10만장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TSMC는 엔비디아와 AMD, 브로드컴 등 주요 고객사의 주문 증가에 맞춰 일부 5나노 장비를 3나노 생산라인으로 전환하고 증설 시점도 앞당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2029~2030년까지 수주 가시성을 확보했다고 밝히며 올해 자본지출 전망도 기존 500억달러대에서 600억~640억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김형준 차세대지능반도체사업단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삼성전자가 고객사에게 5나노 공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면 비용 경쟁력과 공정 안정성 등을 고려한 전략적 가능성이 있다”며 “최고 수준의 성능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고객사라면 원가와 공급 일정 등을 감안해 5나노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경.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식 성과급’ 제안… 자사주 보유량의 5배 필요

보유 자사주 163만주에 그쳐
PS 절반 지급 땀 최대 950만주
부족분 메우려 추가 매입 불가피
주주환원책과 재원 배분 맞물려
기준가·주총 승인·노조 반발 변수

SK하이닉스가 초과이익분배금(PS)의 절반을 넘는 금액을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급 물량 확보가 변수로 떠올랐다. 보유 자사주는 발행주식의 0.2% 수준에 그쳐 매년 대규모 매입이 불가피하다. 회사가 연내 발표를 예고한 추가 주주환원 정책과도 자사주 재원이 맞물린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지난 5월 13일 공시 기준 보통주 163만 448주다. 발행주식의 0.2% 수준이다.

성과급 재원은 이를 크게 웃돈다. 노사는 지난해 교섭에서 영업이익의 10%를 PS 재원으로 삼기로 하고 기본급 1000%인 지급 상한을 폐지했다. 이 기준은 10년간 유지된다. 회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98조 1529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증권가가 전망하는 연간 영업이익 250조원을 적용하면 재원은 250조원 규모다.

절반을 주식으로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필요한 물량은 730만~950만주에 이른다. 보유 자사주의 5배 가량이다. PS 재원 25조원과 주식 지급 비중 50%를 전제로 최근 주가를 적용한 추산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임단협에서는 논의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자사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 추가 매입이 병행된다고 부연했다.

자사주 성과급 자체는 전례가 있다. 회사는 지난 1월 이사회에서 임직원 상여금 지급용으로 자사주 45만1015주 처분을 결정했다. 당시 물량은 이번엔 거론되는 규모의 10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문제는 재원이다. 같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자사주 1530만주 소각은 유동 주식수를 줄여 주주 지분 가치를 높이는 조치인 반면 성과급용 매입분은 임직원에게 지급돼 소각 대상에서 빠진다. SK하이닉스는 2025~2027년 주주환원 정책에서 주



SK하이닉스의 자사주 성과급 지급과 주주환원 정책을 형상화한 생성형 AI 이미지.

당 고정배당금을 1500원으로 올려 연간 배당 총액을 1조원 규모로 잡았다. 성과급 재원의 25분의 1 수준이다. 김우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지난 4월 콘퍼런스콜에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포함한 추가 환원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자사주 활용 방향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기준가를 어느 시점으로 잡느냐도 변수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지난달 25일 장중 298만7000원까지 올랐다가 30일 132만 2000원으로 반토막 났다. 같은 재원이라도 기준 시점에 따라 필요 주식 수가 두 배 이상 벌어지지만 교섭안에 기준가 산정 방식이 담겼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절차상 관문도 남아 있다. 개정 상법은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 후 1년 내 소

각하도록 하되 임직원 보상 등 예외 목적의 경우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계획을 위반해 처분하면 이사 개인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삼성전자도 지난달 7일 성과급 지급을 위해 자사주 108만주를 처분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합의안만 보고 주주이익 침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아차피 주주총회에서 승인 여부가 가려져야 하고 주주가 반대한다면 주총에서 부결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노사는 지난 4일 청주캠퍼스에서 임단협 5차 본교섭을 열었다. 노조가 공개한 4차 본교섭 회의록에 따르면 사측은 PS의

절반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을 주식으로 지급하고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하는 제안과 함께 적자 발생 시 임금을 일시 조정하는 방안을 유지했다. 메모리 업황의 변동성을 이유로 들면서다. 반면 노조는 지난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수정안이 없으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합의 1년도 안 돼 지급 방식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르면서 내부 반발도 커지고 있다. SK하이닉스 직원 A씨는 “1년도 안 돼 합의를 바꾼다는 것 자체가 구성원들에게 스트레스”라고 말했다.

정부도 기준 마련에 나섰다. 노동부는 성과급과 공장 신설 기업 투자 등 경영상 판단이 쟁의 대상으로 과도하게 넓어지지 않도록 판단 기준을 만들고 있다. 전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달 중 범위를 구체화하겠다고 하며 “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만 가지고 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한편 성과급 결정 권한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과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과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대표이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노동부 지침과 수사 결과에 따라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둘러싼 기준이 정리될 전망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민주당, 부동산 세제 여파 점검… “전월세·청년 주거 면밀히 살필 것”

서울 지역 의원 간담회 정례화
비거주 1주택 보유세 정정 보상
정부 공급안 발표 후 후속 논의
오세훈 시장에 주택 확대 촉구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여파를 진화하기 위해 향후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6일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정책 변화의 이해와 서울 지역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뜻을 모았다. 간담회에는 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강서병) 의원과 남인순(송파병)·진성준(강서을)·오기형(도봉을)·김영배(성북갑)·이용선(양천을)·최기상(금천구)·김남근(성북을)·채현일(영등포갑)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영배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



남인순 국회 부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대응을 위한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나 “(부동산 세제개편은) 12월 초 국회에서 예산 부수 법안으로 통과돼야 입법과정이 필수적으로 진행된다”며 “세제가 시장과 전월세, 시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대책이 필요할 지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자고 결의했다”고 전했다.

또 “전월세를 포함해 2030 청년의 주거 사다리 문제와 관련해 내밀하게 모니터링 하자고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세제개편 핵심인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강화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에서)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집중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나오면 논의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오는 7일 2차 부동산 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재차 논의할 전망이다.

아울러 서울시가 주택 공급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공급의 광장히 중요한 한 축이 서울시”라며 “본인의 정치적 아젠다로만 활용하지 실질적 주택 공급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 시장을 향해 “서민과 중산층, 청년 공급 절벽 심화를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면서 “오 시장과 이재명 정부가 함께 손잡고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민주당 서울시당과 서울시의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간사를 맡은 김남근 의원은 “오 시장 시장 4년 동안 10년 평균에 비해 주택 공급이 60% 가량 줄었다”며 “다양한 주택 공급이 필요한 서울시의 상황을 외면하고 자신의 정치 브랜드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공급도 잘 안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내지 수정 여부 논의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러 주장이 있고, 입법 과정까지 시간이 있어서 면밀히 검토해 최종 입법 과정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설명

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의원도 일부 참석했다. 김남근 의원은 “서울시당 공식 기구로 이 모임을 계속 진행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들은 내주에도 부동산 공급 문제와 관련해 추가 모임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당 차원에서도 부동산 민심을 다독이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한정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주택공급, 전월세 시장 등에 대한 국민 우려를 잘 안다”며 “세제개편 관련 국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시장 영향을 세부적 부분까지 살피며 당정이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확대 개편되는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공급과 금융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



metro

서울 아파트 78주째 상승… 강북·외곽이 끝났다

매매가 0.26% 올라 상승폭 확대
중랑 0.52%·성북 0.49% 상승 주도
전셋값도 0.25% 올라 동반 강세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7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주 전국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3일 기준 0.09%, 전세가격지수는 0.11% 상승했다. 서울은 한 주간 0.26% 올랐다. 지

난해 2월 첫째주 이후 78주 연속 상승했으며, 전주(0.25%) 대비 상승폭도 커졌다.

부동산원은 “국지적으로 관망분위기가 있는 가운데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발생하며 서울 전세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가격 부담이 덜한 자치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중랑구(0.52%)는 신내·묵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북구(0.49%)는

돈암·하월곡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노원구(0.46%)는 상계·월계동 위주로 상승했다. 이와 함께 금천구(0.32%)는 시흥·독산동 주요 단지 위주로, 구로구(0.30%)는 개봉·구로동 역세권 위주로, 관악구(0.30%)는 신림·봉천동 대단지 위주로 올랐다.

수도권 전체로는 0.17% 올랐다. 상승률은 인천과 경기가 각각 0.03%, 0.16%다.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한 주간 수도권

과 서울이 각각 0.19%, 0.25%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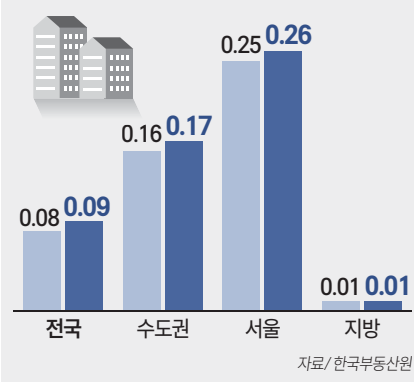
부동산원은 “거주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학군지·대단지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전세가 올랐다”고 밝혔다. 전세가격 역시 강북과 외곽의 상승률이 높았다. 성북구의 상승률이 0.49%로 가장 높았으며, 노원구가 0.42%로 그 뒤를 이었다. /한성미 기자 smhm@



metro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7월 27일 8월 3일 단위: %



“주주·투자자 배제 영업익 분배, 자본주의 발전방향 역행”

▶ 1면 ‘김정관 “주52시간제…”’서 계속

반도체 수익은 재투자 될 자금
상법·자본시장 개정 관계부처와 협의
호남권 반도체 특구 당위성 설명
쿠광규제엔 “한미 동맹 흔들 수준 아냐”

◆ “반도체 돈 나눠 먹으면 거위 배 가르는 꼴…성과급 주주 승인 의무화 검토”

최근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불거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N%)’ 요구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원칙과 재투자자의 중요성을 내세워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반도체는 우리나라에 남은 유일한 전략자산이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며 “여기서 버는 돈은 단순히 나눠 먹은 돈이 아니라 조격차 유지를 위해 재투자되어야 할 자금”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반도체 펩 하나를 짓는 데 150조~200조 원이 들고 호남 메가특구 조성에만 800조 원이 들어간다”며 “돈을 잘 벌 때 수십조 원을 보태 재투자하지 않으면 1~2년 뒤 반도체 주도권은 우리 것이 아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측면을 짚으며 “회사의 주인은 위험을 감수하는 주주와 투자자인데, 이들이 배제된 채 영업이익을 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누는 구조는 자본주의 발전 방향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기업에 어느 투자자가 들어오겠느냐”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반드시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도록 하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을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 “중국 반도체 속도전 소름 끼칠 정도…호남 특구는 전력·용수 최적지”

반도체 기술 조격차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속도전도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5년 뒤 1조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텐데, 현재의 65% 점유

율을 유지하려 해도 지금의 속도는 늦다”며 “중국이 노광장비 국산화 등 소부장 분야에서 보여주는 속도와 기술력은 소름이 끼칠 정도라 생각보다 초조하고 절박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정치적 선택에 따른 발표라는 일각의 시각이 존재하는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대해서는 전력 및 용수 인프라 차원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용인 클러스터를 2027년 등으로 최대한 앞당겨 짓는 것이 우선 과제지만, 수도권 전력 및 용수 한계로 용인만으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호남은 평

평한 평지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한빛원전과 기존 전력망(그리드)이 잘 연결돼 있어 수도권 대비 전력 송배전망 확보에 유연한 최적의 거점”이라고 강조했다.

원전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AI 시대는 전기를 AI로 바꾸는 시대라 할 만큼 가격과 품질이 뛰어난 전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빈약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발전소 활용은 불가피하며, 여야이념을 떠나 국민 삶과 수출 산업 지원을 위해 원전 정책과 해외 수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 한미 통상 현안…“美 관세 15% 상한 방어, 쿠광 사태는 동맹 흔들 사안 아냐”

통상 분야에서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쿠광 규제 논란 등 산적한 대미 현안에 대한 해명을 이어갔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추가 관세 우려와 관련해 김 장관은 “강제노동 관세 12.5%는 일본·스위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받아들였다”며 “향후 남아있는 과잉생산 분야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양국간 기존 합의 정신에 따라 총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미국 통상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표 시기는 당초 미국이 생각한 8월 이내

에서 다소 이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미 조선 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 A) 프로젝트’의 진행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 측의 복잡하고 다변화된 규제 체계 때문이지 협력 기조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도 중동 정세 등으로 군함 유지·보수·정비(MRO)와 상선 건조 수요가 절실해 한국을 유일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 지난날 개설한 한미 조선협력센터를 통해 난관을 돌파하겠다”고 답했다.

미국 정치권에서 제기된 ‘쿠광 차별 규제’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태의 본질은 한국 성인 80%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엄중한 사건”이라며 “미국 USTR이나 상무부 등 실무 통상 당국은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미 정치인들에게도 상황을 적극 설명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있다. 쿠광 이슈가 한미 동맹이라는 굳건한 기초를 흔들 수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는 최근 우리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광을 차별해 규제하고 과도하게 조사하고 제재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공개했고, 우리 정부는 유감을 표하는 한편 사실과 다른 내용과 누락된 중요 사실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반지 하나로 24시간 혈압관리… K-웨어러블, 美·유럽 공략

스카이랩스 ‘카트 비피 프로’
美 FDA 허가·코스닥 상장 준비

아이센스, CGM 호조에 최대실적
‘케어센스 에어 2’로 매출확대 속도

GC녹십자엠에스 ‘GC Fit’
유럽 CE-IVDR 적합 인증 획득



개인용 혈당정기 ‘GC Fit’. /GC녹십자엠에스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차별화된 기술력과 강화된 글로벌 인허가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차세대 혈압 모니터링 기기부터 연속혈당측정기(CGM), 진단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임상 착수, 규제 기관 인증 획득 등을 통해 기업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스카이랩스는 반지형 혈압계 ‘카트 비피 프로’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스카이랩스는 FDA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통해 제품 성능과 임상적 유효성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를 이미 확보했음을 확인했다. 향후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심의와 환자 등록을 진행해 2027년 상반기까지 임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카트 비피 프로는 기존 커프형 혈압계와 달리 반지 형태로 착용해 일상 및 수면 중 24시간 연속 측정이 가능하다. 스카이랩스는 이미 국내외에서 제품 경쟁력을 인정받아 왔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와 유럽 의료기기 규정(CE-MDR)

인증, 영국 의약품·의료제품규제청(MHRA) 등록을 마친 상태다.

스카이랩스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적 성장에서도 기업 가능성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스카이랩스 매출은 2023년 약 6억원에서 2024년 약 41억원, 2025년 약 79억원으로 최근 2년 만에 13배 이상 수직 상승했다. 올해 1분기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54% 증가한 약 21억원을 기록했다. 수익성 지표 측면에서는 지난해 매출총이익 약 39억원으로 흑자 전환을 이뤄냈다.

스카이랩스는 코스닥 상장 절차에도 착수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 일정에 돌입했다. 총 200만 주를 공모하며, 희망 공모가는 1만 3000원~1만 6000원이다. 공모 예정 금액 약 260억원~320억원 수준이다.

이병환 스카이랩스 대표는 “반지형 웨어러블 기기와 AI 분석 기술을 융합해 일상 속 생체신호 모니터링 시장의 패러다임을 혁신해왔다”며 “이번 상장을 발판 삼아 측정 영역을 본격 확장하고, 신뢰도 높은 데

이터를 생산하는 독보적인 의료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바이오센서 전문기업 아이센스는 연속혈당측정기(CGM) 사업의 호조에 힘입어 2026년 2분기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아이센스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한 885억원, 영업이익은 274.1% 급증한 63억원을 올렸다. 매출 증가와 더불어 CGM 매출 비중 확대에 따른 제품 믹스 개선으로 수익성이 대폭 향상된 성과다. 2분기 CGM 매출은 연결 기준 약 94억원을 기록했으며, 특히 해외 매출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아이센스는 최근 독일, 영국, 벨기에 공보 보험 등재를 마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주요 보험 등재와 차세대 제품인 ‘케어센스 에어 2’의 인허가 및 글로벌 임상을 차질 없이 추진해 해외 매출 확대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진단시약 및 의료기기 전문기업 GC녹

십자엠에스도 올해 들어 혈당 사업부문에서 신제품 내놓으며 유럽 수출 기반을 다졌다.

차세대 개인용 혈당 측정시스템 ‘GC Fit’이 유럽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정 ‘CE-IVDR’ 적합 인증을 획득한 것이다. 해당 규정은 기존 규정 ‘CE-IVDD’ 대비 제품 성능 및 안전성 요건이 대폭 강화된 제도다.

특히 이번 인증은 위험도가 높은 ‘Class-C’ 제품군에 해당함에도 회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통과해 유럽 표준에 부합하는 높은 성능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GC녹십자엠에스는 이번 인증을 통해 기존 계획보다 2개월 빠르게 유럽 시장 진출을 타진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GC녹십자엠에스는 광학형 헤모글로빈(Hb) 측정 제품, 메탈기반 혈당측정시스템 등 제품군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metro

산업현장에 AI로봇 年 1000대씩 보급… ‘모두의 성장’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 발표
철강 등 주력산업 제조공정 AI 혁신
구윤철, 외신 韓 경제 평가에 반박도

인공지능(AI) 로봇을 연간 1000대씩 산업 현장에 보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반도체 부문의 AI 경쟁력을 철강·석유화학·가전·조선·자동차·바이오 등 10대 주력산업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



표했다.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로 잠재성장률 하방 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 성과가 민생 전반에 고르게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

경제부 장관(사진)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겸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내용의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을 발

단했다. 이에 산업구조 혁신과 ‘모두의 성장’을 양대 축으로 잠재성장률 반등에 주력한다.

우선 철강·석유화학·가전·조선·자동차·바이오 등 주력산업의 제조 공정을 AI로 혁신하고,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지원한다.

철강은 수소환원제철과 특수탄소강 기술을 개발하고 석유화학은 사업 재편과 대체 원료 도입, 3대 산단 상생을 병행한다. 바이오는 AI 신약 개발과 유니콘 육

성,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추진한다.

가전·조선에는 산업 특화 휴머노이드와 용접로봇을 개발하고 자율운항·친환경 선박 기술을 지원한다. 자동차 부품 제조는 AI 팩토리로 전환하고 한국형 자율주행 AI 모델을 개발한다. 반도체는 메모리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온디바이스·AI 데이터센터·국방·전력 반도체를 육성한다.

피지컬 AI 기반 구축을 위해 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등 핵심 부품 연구개발(R&D)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 경제 및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성장, 수출, 물가, 소비·기업심리지수 등 실물과 거시지표 모두 건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또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가지수도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구조적 체질개선과 신산업 육성 노력 등을 지속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KB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요즘 환전?

KB스타뱅킹 공항에서 바로 터치 캐치

환전하는 순간부터 여행은 시작되니까
환전부터 간편하게 KB환전서비스

스타프렌즈 러기지택 증정 이벤트

기간 2026.7.20.(월) — 2026.8.31.(월) *경품 지급은 외화 현찰 수령일 기준
내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고객 대상 3,000명 선착순 경품 랜덤 제공

- 01 KB스타(인터넷)뱅킹에서 이벤트 대상 통화를
미화 100불 상당액 이상 전액 원화에서 외화로 환전
* 이벤트 대상 통화 : THB, VND, CNY, TWD, PHP
- 02 수령 방법 선택 시 "인천공항에서 받기" 선택
- 03 인천국제공항 지점 및 환전소에서 외화를 수령하며
"이벤트 알림톡" 제시

경품 스타프렌즈 여행용 러기지택 랜덤 증정(3,000개)
* 이벤트 기간 중 고객별 경품 1회 지급 (중복 불가) / 경품 소진 시 조기 종료



이벤트 참여하기

최대 90% 환율우대

24시간 환전 신청

인천국제공항 어디서나 수령
2개 영업점, 7개 환전소(면세구역 제외), 7개 ATM

※경품은 고객님께서 선택할 수 없으며 준비된 경품 중 하나가 랜덤으로 지급됩니다. ※완료된 환전 거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연세구역(출국심사 후, 입국심사 전) 및 환승 고객의 경우 비대면 채널에서 환전하신 외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환전을 신청한 본인 고객만 찾을 수 있습니다(대리인 수령 불가). ※환전 신청한 금액은 원화로 직접 되팔기 할 수 있으며, 거래 시점의 환율 파실 때 환율(환전 신청 시 적용한 환율 우대율 적용)이 적용됩니다. ※환전 후 미수령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 외화는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되지만 이자 지급의 대상은 아닙니다. ※미달러(USD)를 제외한 기타 통화를 외화 입출금 계좌에 입금 후 영업점에 방문하여 외화를 출금할 경우 외화현금보관수수료(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합니다. (JPY, EUR 1.5%, 그 외 기타통화 3%) ※비대면 환전 신청은 24시간(토, 일, 공휴일 포함) 가능하나, 온라인 영업일자 전환시간(매일 00:00~00:05) 및 매월 셋째주 일요일(00:00~07:00)은 시스템 조정 작업으로 인해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 광고물은 이벤트 관련 홍보물이며 서비스 이용 전자세한 사항에 대해 서비스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융상품(서비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 원까지"(본 은행의 여타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3526호(2026.07.29), 유효기간 2026.07.29.~2026.08.31.까지

KB 국민은행

국힘 “정책 실패” vs 민주당 “국조 불가”… ETF 공방 격화

국힘, 국조·특검 추진 필요성 제기
범여권 조국혁신당도 비판의 목소리
청와대, 책임자 경질론에는 거리 뒀

이른바 ‘물러코스코’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요구했고, 범여권에서도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에 응할 뜻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연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정책 실패에 대한 공세를 이어오고 있다.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코스코·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왜 이렇게 성급하고 무리하게 도입한 것인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주요 책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따질 수 있는 자리는 국



김용범 정책실장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심하고 있다. /뉴시스

정조사뿐”이라고 썼다.

장동혁 당 대표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레버리지 ETF에 우려를 표했음에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를 밀어붙였다면 우리는 다른 길 의심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넘어 특검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여권으로 통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혁

신정책연구위원장 역시 자신의 SNS에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명백한 정책 실패이자 관치 금융의 실패”라며 “한국 주식시장이 카지노가 되어서 안 된다. 극심한 불평등의 늪에서 탈출하고자 레버리지의 뿔 안으로 들어간 청년의 삶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

통령이 해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으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의) 원흉인 김용범 정책실장을 파면해야 할 텐데 그냥 두고 있다”며 “많은 30대분들이 파는물을 흘리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상장폐지 하지 않고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 우상향 국면으로 가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에 뛰어드는 분들은 많아지게 될 것이다. 정부가 만든 도박판을 빨리 거둬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ETF 국정조사·특검에 응할 생각이 없는 분위기다. 김성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6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 정책을 세울 때마다 국정조사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며 “저희가 그런(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요구) 입장에 공감하지 않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나친 태도라고 본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지적하고 국정조사 얘기를 꺼내야 한다”고 보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김용범 경질론에 거리를 뒀다.

성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었다는 점을 청와대도 인식하고 있다”며 “이미 보완대책을 내놓고 현재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필요하다면 추가대책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나이가 “지금은 시장 (상황)을 일단 유의 깊게 살피면서 대책을 챙기는 것이 저희로서는 더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원내 수석이 나 다른 의원들이 다 같이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며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metroseoul.co.kr



metro

李 대통령 “폭염 끝날 때까지 비상 대응”

“인력·자원 총동원해 피해 최소화
취약계층 보호 조치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연일 극심한 폭염이 계속되는 데 대해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 많은 만큼 정부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폭염이 완화될 때까지 전방위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폭염·가뭄 대처 상황 점검회의의 모두발언에서 “그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해야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극한 기후에 걸맞은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 모든 부처 그리고 지방정부는 가용한 인력, 자원 총동원해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냉방시설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직접 찾아서 안부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 열린 폭염 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확인하는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겠다”고 당부했다.

또 “야외 작업장에서는 가장 더운 시간대에 작업 중지나 휴식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현장을 철저히 점검해 주기 바란다”며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지도록 관계 당국이 최선을 다해주시

바라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가족이나 양식 어류, 농작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 시설의 안전과 전력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해 달라고도 했다.

남부 지역의 가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 비 예보도 없는 만큼 대체 용수 공급, 양수장비 가동 등을 적극 추진해서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해야겠다”며 “특히 도서·산간 등 상수도 미보급 지역은 비상급수 같은 조치 외에도 대체 수원 개발같이 중장기 용수 확보 대책도 병행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셔야 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이 이뤄지도록 각 기관이 책임감 가지고 대응해 주고 공무원, 경찰, 소방 자원봉사자 등 현장 대응 인력의 건강과 안전 빈틈없이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syj@

청년정책 대전환 예고… 맞춤형 지원 강화

李, 부처별 정책 연계성 강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년 정책 집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청년 정책을 교육과 취업, 소득과 자산, 주거와 결혼 등 청년 삶의 핵심 영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걸 적극 검토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들은 지금까지 거의 취약계층이 돼 가고 있다”며 “여러 국정과제 가운데 속도 높여야 할 것 중 하나가 청년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처별로 정부 정책이 마련돼 있지만, 연계성이 낮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하며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정책을 정부에서도 준비하고 있는데 부처별로 청년 사업들 간에 연계성이 떨어지거나 또는 청년 정책의 구체적 내용이 쉽게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며 “얼마 전 청와대가 실시한 청년 FGI(심층면접) 조사에서도 청년 정책 가짓수는 많은데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굵직한 정책은 없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의 실제 수요와 생애 주기에 맞게 정책들을 촘촘하게 정비하고 지원 정책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며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문턱을 낮춰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체계를 두텁게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책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정책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종 청년 관련 정책과 제도들이 워낙 복잡하게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이를 아는 사람만 활용한다는 비판이 큰 것도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앉아서 신청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에게 이를 선제적으로 안내해서 최대한 많은 신청을 유도하는 인공지능 온라인시스템 같은 것도 구축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민주, 13일 본회의서 35개 법안 처리 예고

국민의힘 협조 여부 변수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논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까지 마친 35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성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8·17 정기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직전인 것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여는 건 아무런 상관없다”며 “(13일 본회의 개최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보지만 국민의힘이 얼마나 응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종결되는 개혁은 없지 않겠나’라고 말한 데 대한

당의 입장을 묻자 “여러가지 문제들을 정비하기 위해 이미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며 “부족한 점들은 법으로 보완할 것도 있고 시행령으로 보완할 것도 있을 텐데 TF 중심으로 논의를 해가며 법 개정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레버리지 ETF’ 국정조사·특별검사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국가 정책을 세울 때마다 국정조사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며 “저희가 그런(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요구) 입장에 공감하지 않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 맘에 안 들면 (국정조사를) 하지는 식으로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며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먼저 지적하고 국정조사 얘기를 꺼내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경수 수습기자

국힘 지도부, 서범수·진종오 징계 수순

연행 심각성 공감, 엄중 조치 의견 모아

국민의힘 지도부는 6일 서범수·진종오 의원의 ‘돌려차기’ 실언 논란과 관련해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연행의 심각성을 고려해 엄중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에서 있었던 발언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며 “최고위에서는 연행의 심각성에 대해 모두 공감했고, 상응한 윤리위의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공통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상 절차를 통해 긴급최고위를 열어 징계 절차를 할 수도 있지만 국민의힘

은 그와 같은 당헌·당규 절차가 없다”며 “상처를 입으셨을 국민과 피해자분께 사죄드린다”고 했다.

지도부 가운데 일부는 당사자들에 대한 자진 탈당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최고위 공개 발언에서 서·진 의원을 겨냥해 “국민을 대하기가 참으로 부끄럽다”며 “당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본인들이 깊이 생각하고 용단을 내려주시기를 호소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최 수석대변인은 “탈당으로 피하기보다 윤리위 절차로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4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국회 간담회에서 진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하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뉴시스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열정 가득한 청년의 내일에 하나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청년의 더 많은 가능성을 위해
도전이 기회가 되고
그 기회가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도록

하나가 청년들의 내일에
힘이 되겠습니다

고용 취약계층 대상 인턴십 지원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기업 연계 청년 일경험 제공

실무형 금융 프로젝트 경험을 통한 청년 취업 경쟁력 강화

· 하나 청년 금융인재 양성 프로젝트 운영

지역 청년 창업가 발굴 및 육성

· 전국 30개 대학 연계 지역 청년 창업 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주담대 금리 고정→변동형 ‘유탄’ 차주 원리금 상환부담 상승 우려

고정금리, 변동형 보다 빠르게 상승 차주들, 이자 낮은 변동형 갈아타 기준금리 인상효과 시차두고 반영 대출기간·금리상승 가능성 고려해야

장기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차주들은 당장의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변동금리 상품으로 눈을 돌리는 모습이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분이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에 반영될 경우 변동금리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지난 6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은 43.9%, 변동금리 비중은 56.1%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47.0%였던 고정금리 비중은 올해 1월 46.6%로 낮아진 데 이어 6월에는 43.9%까지 떨어졌다. 반면 변동금리 비중은 같은 기간 53.0%에서 53.4%로 오른 뒤 6월 56.1%까지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도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서 변동형 상품과의 금리 차가 확대되자, 당장 낮은 금리를 적용받으려는 차주들의 수요가 변동금리로 이동하고 있다.

6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 기준 고정금리 비중은 63.1%로 변동금리보다 높았다. 그러나 6월 신규 취급액만 놓고 보면 고정형 비중은 37.7%로 떨어졌다. 기존 대출에서는 고정형 비중이 높지만, 최근 신규 차주들의 선택은 변동형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준거금리로 활용되는 은행채 5년물(AAA) 금리가 상승하면서 고정형 대출금리가 변동형보다 빠르게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채 5년물(AAA) 금리는 6월 말 4.241%에서 7월 말 4.343%로 0.102%포인트(p) 올랐다.

반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준거금리인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도 5월 2.90%에서 6월 3.05%로 상승했다. 다만 실제 대출금리는 변동형이 고정형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신규 차주들이 변동형으로 이동하고 있다.

은행들은 당장 고정금리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준거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대출금리를 적극적으로 낮추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추진해 온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비중 확대도 당분간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금리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현재 변동금리를 선택한 차주에게 유리한 상황이 계속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고정형보다 낮아 차주들이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만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코픽스와 대출금리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 향후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단순히 현재 금리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대출 기간과 금리 상승 가능성, 상환 여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metro



DL이앤씨 안전관제실.

/DL이앤씨

DL이앤씨, AI 기반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사내 TF 발족, 안전체계 전면 개편

DL이앤씨가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과 근로자 체감형 복지 확대 등 건설 현장의 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6일 “사내 TF를 발족해 현장 관리뿐 아니라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안전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 중”이라며 “현장의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강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작업중지권 포상 확대 외에 업계 최초로 데이터 기반의 AI 분석을 통한 실시간 위험 예측·경고 강화 시스템을 개발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DL이앤씨는 AI 기반 ‘선제적 위험 경고 시스템’을 도입해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출입관리 시스템과 AI 위험도 분석 모델을 연계해 사고 취약

근로자를 사전에 식별하고, 기상정보와 중장비 이동, 화재 감지 등 다양한 현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위험도가 높은 작업 상황을 예측하고 경고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의 유사 사고 통계 분석을 넘어 작업자의 작업장소와 행동 패턴까지 AI가 함께 분석해 위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인다.

최근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도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용한다. 작업장에 설치된 IoT 기반 체감온도계가 현장별 체감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면 안전보건 관리자가 이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38도 이상이면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한다. 안전 배패를 활용해 해당 작업자를 신속히 식별해 작업 중지나 휴식 부여, 작업시간 조정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

매출하락 감수… 코인 거래소 ‘수수료 경쟁’

점유율 확대·이용자 이탈방지 나서 코인원·빗썸, 수수료 인하 쿠폰 발급 업비트, 수수료 인하·조건부 면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수수료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가상자산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로 신규 투자자가 줄어든 만큼, 한정된 투자수요를 끌어 오려는 전략이다.

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지난달 말부터 모든 회원에게 거래 수수료를 0.04%포인트(p) 인하하는 ‘바우처’ 발급을 시작했다. 혜택은 30일 동안 제공되지만, 바우처의 만기가 됐거나 잔여 기간이 7일 이내라면 횡수 제한 없이 재발급받을 수 있다.

빗썸도 30일마다 연장되는 ‘수수료 쿠폰’을 통해 유사한 거래 수수료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업비트는 별도의 쿠폰을 발급하는 대신 기본 수수료를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스테이블코인 거래 시 수수료를 면제 중이다. 코빗도 지정거래소 시 조건부로 수수료를 면제한다.

거래소들이 수수료 경쟁에 나선 것은 시



AI가 생성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수료 경쟁 이미지. /따눔AI

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기존 이용자 이탈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가상자산은 디지털 환경에서 거래되는 특성상 거래소 간 송금도 자유롭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중장기 투자를 위해 수수료가 낮은 거래소로 이동한다.

거래소들이 매출의 약 97~99%를 수수료에 의존하는 만큼 수수료 인하 조치는 매출 하락을 감수한 ‘초강수’다. 다만 수수료 중심의 경쟁은 지속되기 어렵다. 가상자산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로 거래소들의 매출도 위험 수준에 도달해서다.

가상자산 거래정보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5개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코픽스)의 거래대금은 약 1464억달러로 집계됐다. 작년 2분기의 2897억달러와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5개 거래소 중 4곳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본다. 1분기에 유일하게 흑자를 냈던 업비트도 큰 폭의 매출 하락이 예상된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엄밀 개선을 위해 가상자산 산업의 ‘입법공백’이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법은 기본법의 부재로 규제범위가 불분명하고 사후규제 가능성도 존재한다. 법인 및 외국인 거래 금지 등 국제 표준에 맞지 않는 제도도 걸림돌이다.

현재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비롯해 관련 입법시계는 멈춰 있다. 당초 지난해 하반기까지 입법을 목표로 했던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입법을 주도했던 민주당의 디지털자산 TF’가 지난 6월 해체되며 논의가 중단됐다.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종료되는 오는 8월 말부터 논의를 재개한다는 입장이지만, 10~11월에는 국감이 예정돼 있어 연내 입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케이뱅크 “알뜰폰 요금제 28종 비교하세요”

제휴 서비스 2종 선보여

케이뱅크는 생활비 절약부터 자산관리까지 지원하는 제휴 서비스 2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서비스는 알뜰폰 요금제를 비교할 수 있는 캐시백 받는 통신비 비교’와 인공지능(AI) 기반 부동산 경매정

보를 제공하는 ‘AI 부동산 경매 찾기’다.

‘캐시백 받는 통신비 비교’는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 알뜰폰 브랜드 티플러스 페이지를 통해 통신 3사의 알뜰폰 요금제 28종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가입 후 통신비 자동이체 계좌를 케이뱅크 계좌로 등록해 요금을 납부하면 가

입 다음 달부터 6개월 동안 매월 네이버페이 포인트 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 혜택은 3만원이다.

해당 서비스는 케이뱅크 앱 서비스 탭의 생활서비스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AI 기반 경매정보 플랫폼 ‘방집고옥션’과 제휴해 ‘AI 부동산 경매 찾기’ 서비스도 선보인다. 이 서비스는 전국 아파트와 상가 등 경매 물건을 탐색하고 매물 기본 정보와 투자 분석 리포트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나유리 기자

SK에코플랜트, AI 인프라 사업 성과 공개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SK에코플랜트가 인공지능(AI) 인프라 사업 성과와 ESG 경영 전략을 담은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반도체 제조시설과 산업용 가스,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AI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 성과가 담겼다.

주요 사업으로는 SK하이닉스의 청주 D램 생산공장인 M15X 준공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울산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등이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이중 중요성 평가’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사업장 안전

보건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기업의 경영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외부 환경이 기업에 미치는 재무 영향을 함께 평가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SK에코플랜트의 임직원 봉사 활동 시간은 총 5만208시간으로 집계됐다. 회사는 AI 인프라 사업장 인건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기후변화 평가에서는 리더십 등급인 A-를 유지했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 총 7640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경제·환경·사회·문화·인재 등 5개 분야를 종합해 산출한 수치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

국토부, 체코 정기 항공편 운항수 확대

주 7→10회… 신규 항공사 취항 기대

지난 3월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항공편이 늘어난 데 이어 한국과 체코를 오가는 정기 항공편의 운항 가능 횟수가 주 7회에서 10회로 늘어난다. 동유럽 여행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동시에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29일 체코 프라하에서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여객 운수권을 주 3회 추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운수권은 양국 정부가 항공사에 허용하는 주간 운항 가능 횟수를 뜻한다.

현재 인천~프라하 노선에서는 대한항

공이 주 4회, 아시아나항공이 주 3회 운항하고 있다. 이번 협의로 신규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취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프라하 노선 운수권은 높은 수요를 반영해 2024년 주 4회에서 7회로 늘어난 바 있다. 국토부는 여행업계와 공항공사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2년 만에 추가 증대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3월 헝가리와 오스트리아의 운수권도 각각 주 14회, 주 21회로 늘렸다. 항공사들이 동유럽 노선을 더욱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채리 수습기자

삼성, 구독서비스 등 구매혜택 강화 역대 최대 사전판매 흥행 이어간다

갤럭시 Z8·워치9 공식 출시

Z8 시리즈, 144만대 사전판매 기록
폼팩터 다양화·AI 첨단기능 주요
한 달간 액세서리 할인쿠폰 등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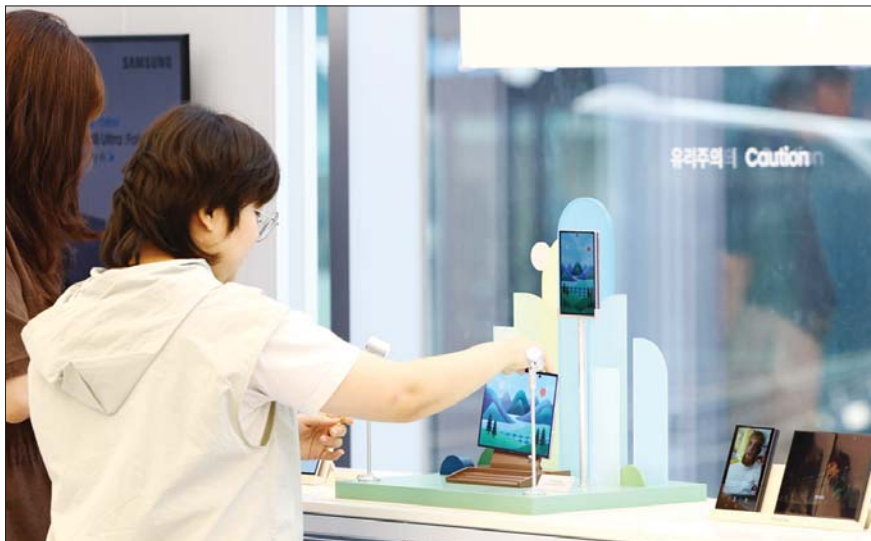
삼성전자가 8세대 폴더블 스마트폰을 7일 국내에 공식 출시한다. 역대 갤럭시 스마트폰 사전판매 최고 기록을 세운 여세를 몰아 폼팩터 다양화와 AI 기능을 앞세워 폴더블 대중화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을 오는 7일부터 국내에 공식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은 지난 7월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된 사전판매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사상 최대인 144만대가 판매됐다. 사전 구매 고객 10명 가운데 약 7명이 폴드8 시리즈를 선택했으며, 삼성닷컴 구매 고객의 절반은 1030세대였다. 특히 폴드8·폴드8 울트라는 구매한 1030 여성 고객은 전작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번 사전판매 실적은 2019년 '갤럭시 노트10'이 세운 138만대 기록을 7년 만에 넘어선 것이다. 갤럭시 Z 시리즈 기준으로 전작인 '갤럭시 Z 폴드7·플립7'의 104만대를 크게 웃돌며 폴더블 스마트폰의 대중화 흐름을 이어갔다.

삼성전자는 8세대 갤럭시 Z 시리즈를 통해 사용자 성향에 맞춘 다양한 폼팩터



지난 4일 서울 삼성 강남을 찾은 시민들이 갤럭시 폴드8 및 플립8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시

를 제시했다.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는 203.1mm 대화면과 215g의 경량 설계를 바탕으로 멀티태스킹과 생산성을 강화했고, 펼쳤을 때 두께는 4.1mm로 역대 폴드 시리즈 가운데 가장 얇다. 2억 화소 메인 카메라와 폴드 시리즈 최초의 50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도 적용했다.

'갤럭시 Z 폴드8'은 201g의 무게와 193.2mm 메인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영상 시청과 게임, 독서 등 콘텐츠 이용 경험을 높였으며, 4800mAh 배터리와 5000만 화소 듀얼 카메라를 탑재했다.

'갤럭시 Z 플립8'은 무게 180g, 두께 6.1mm로 역대 플립 시리즈 가운데 가장 얇고 가볍다. 새롭게 추가된 '미러뷰(Mirror View)' 기능을 통해 별도 거울 없이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출시되는 '갤럭시 워치 울트라2'와 '갤럭시 워치9'도 사전판매에서 전

작보다 두 자릿수 판매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갤럭시 워치 울트라2'는 여성 구매 비중이 전작 대비 약 15% 확대됐다.

'갤럭시 워치 울트라2'는 800mAh 배터리와 최대 5000니트 밝기의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아웃도어 환경에서 활용성을 높였고, '갤럭시 워치9'은 생체 징후와 심장 건강 점수, 일일 유산소 부하, 신체 체력 지수 등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8월 한 달간 신제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워치 할인 쿠폰과 액세서리 할인, AI 구독 서비스 등 다양한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신제품은 한국을 시작으로 미국, 영국, 인도, 일본 등 100여 개국에 순차 출시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선박엔진 빅3, 실적개선 속도

친환경 선박 전환 등 호재 작용
생산량 확대·고가 수주물량 인도

국내 선박용 엔진업체들이 조선업 호황과 친환경 이종연료(DF) 엔진 확대에 힘입어 외형과 수익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다. 공장 가동률을 높여 생산량을 늘리는 한편 고가 수주 물량 인도를 본격화하며 실적 개선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6월 업계에 따르면 주요 선박용 엔진사들은 지난 2분기 저가 수주 물량이 줄고 고가 물량 매출 반영이 늘면서 수익성이 개선됐다. HD현대마린엔진은 지난 2023년 저가 물량 비중이 1분기 12%에서 2분기 5%로 낮아진 반면 고가 물량 비중은 13%에서 40%로 확대되며 매출 1281억원(전년 동기 대비+29.1%), 영업이익 313억원(+79.2%)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도 24.4%(+6.9%포인트)로 올랐다.

HD현대중공업 엔진기계 사업부도 DF 엔진 매출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영업이익 2364억원(+28.5%), 영업이익률 24.8%(+6.9%포인트)를 기록했다. 한화엔진 역시 2024년 이후 확보한 고가 물량 인도가 본격화되며 영업이익 379억원(+12.1%), 영업이익률 10.5%(+1.8%포인트)로 개선됐다.

이 같은 수익성 개선의 배경에는 친환경 선박 전환 추세가 자리 잡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 규제 강화로 DF 엔진 수요가 증가하자 선주들이 가격보다 운항 안정성과 실선 레퍼런스를 우선시하면서 고가 물량 수주가 가능해졌다

는 분석이다.

친환경 DF 엔진 확대는 엔진업체의 생산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DF 엔진은 전자제어 및 이종연료 공급장치, 안전 설계가 추가돼 공정이 복잡하고 제작 기간이 길다. 이로 인해 HD현대마린엔진의 연간 생산능력은 200만BHP에서 2024년 140만BHP로 30% 조정됐으며, 한화엔진도 346만8000BHP에서 지난해 336만BHP으로 약 1.2% 감소했다.

그러나 수치상의 생산능력 조정이 실제 감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선업 호황으로 주문이 증가하자 설비를 풀가동하면서 실제 생산량은 늘어났다. HD현대마린엔진의 생산실적은 2023년 63만BHP에서 지난해 124만7000BHP로 늘었고, 가동률은 약 32%에서 지난 1분기 91.7%로 상승했다. 한화엔진 역시 생산 실적이 같은 기간 319만1000마력에서 338만5000마력으로 6.1% 증가했으며, 지난 1분기 가동률은 100.5%를 기록했다.

최근 분기 실적 개선은 장기적인 수익성 개선 흐름 위에서 나타난 결과다. 고가 DF 엔진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엔진업체들의 수익성도 중장기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공장 가동을 통한 물량 증가가 실적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고가제품 믹스 개선이 이익의 폭을 결정짓는 단계"라며 "고가 이종연료 엔진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됨에 따라 이 같은 수익성 상승 구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LS일렉, 글로벌 ESS 인프라 시장 공략 박차

전력변환장치 'G2' 양산 돌입

LS일렉트릭이 차세대 에너지저장장치(ESS)용 전력변환장치(PCS) 'G2' 양산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ESS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고효율·고밀도 제품을 앞세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LS일렉트릭은 지난 5일 충남 천안사업장 DC팩토리에서 구자근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G2 초도 출하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구 회장은 G2 전용 생산라인을 둘러보며 생산계획과 품질관리 현황을 점검

했다. 그는 "천안 DC팩토리는 직류(DC) 생태계 전반에 걸친 LS일렉트릭의 기술 경쟁력을 증명하는 핵심 전초기지"라며 "무결점 품질을 기반으로 완벽한 제품을 생산해 DC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ESS 시장을 선도해 나가자"고 말했다.

G2는 LS일렉트릭이 해외 시장을 겨냥해 개발한 차세대 ESS용 PCS다. 배터리에서 저장된 직류 전력을 교류로 변환하거나 교류 전력을 직류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수냉식 냉각 기술을 적용해 기존 공랭식 제품보다 발열 제어 성능과 내구성을 높였다. 설치 면적을 줄인 소형 구조를 채택해 공간 활용도와 운영 효율성도 개선했다. /원관희 기자 wkh@

가족단위 방문객 북적... "디자인·성능, 중국차 편견 넘어서"

르포

지리자동차 지커 전시장

평일에도 상담 테이블 대부분 채워져
사전예약 고객 170만원 상당 혜택 제공

"보조금은 안 나오지만 차는 한번 타보셔야 합니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강동구 더리버몰 지리자동차그룹 프리미엄 브랜드 지커 전시장. 평일 오후인데도 상담 테이블은 대부분 채워져 있었다. 매장 한쪽에서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차량 내부를 살펴보고, 다른 쪽에서는 직원이 출고 일정을 설명하느라 분주했다. 길 건너에는 경쟁사인 BYD 전시장이 자리했지만, 지커 매장 안의 분위기는 예상보다 활기찼다.

지커는 중국 지리자동차그룹 산하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로 같은 그룹 계열사인 볼보의 기술력을 공유하며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을 겨냥해 설립됐다.

지난해 12월 한국 시장 공식 출범을 알린 지커는 출발부터 약재를 한꺼번에 떠안았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0원, 개별 소비세·취득세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됐고, 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 적용도 받지 못한다. 전기차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혜택 세 가지가 모두 빠진 셈이다.

이 같은 약재에도 소비자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다. 매장 관계자는 "평일



강동구 더리버몰에 위치한 지커 전시장에서 고객들이 딜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승혁 수습기자

15일, 주말에는 50명 정도가 방문하고 시승 예약도 평일 7~8건, 주말에는 20건 안팎 들어온다"고 말했다. 국내 첫 모델인 '7X'는 8월 말부터 고객 인도를 시작한다. 인증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지며 일정은 다소 밀렸지만 "국내에 들어온 차량은 상당수 확보돼 있다"는 설명이다.

혜택 공백은 현장에서 '170만원'이라는 숫자로 매워지고 있었다. 사전예약 고객에게는 70만원 상당의 차량용 냉장고 옵션과 스타게이트·자동문 할인 등 약 17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 관계자는 "보조금 수준의 혜택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보조금 때문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지커가 받지 못하는 혜택은 적지 않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고 보조금은 최대 580만원, 지자체 지원까지 더하

면 지역에 따라 1000만원을 넘는다. 세제 감면까지 감안하면 체감 차이는 훨씬 커진다.

소비자들의 계산법은 엇갈렸다. 차량 교체에 위해 방문한 이상규(49) 씨는 테슬라와 BYD, 지커를 비교 중이었다. 그는 "보조금이 예전처럼 500만~1000만원씩 나왔다면 당연히 많은 쪽을 선택했겠지만 지금 수준이라면 포기할 만하다"며 "셋 중에서는 디자인과 실내가 가장 마음에 들어 구매를 거의 결정했다"고 말했다.

실제 BYD 아토3의 국고 보조금은 145만원, 테슬라 모델3 RWD는 186만원 수준이다. 보조금과 세제 혜택, 화재보험이 모두 빠진 상태에서도 지커는 디자인과 상품성으로 소비자를 붙잡고 있다.

/양성운·이승혁 수습기자 ysw@

CJ대한통운, 도심 자율주행 물류실증 나선다

10월 대구서 화물운송 사업 운영

CJ대한통운이 대구광역시, 지능형자동차부품연구원과 협력해 오는 10월부터 대구권 미들마일 구간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 사업을 정식 운영한다.

6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존 고속도로 중심 자율주행 운영 경험을 도심 구간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실제 물류 운영 환경에서 자율주행 기술과 운영 역량을 동시에 검증하는 데 의미가 있다.

시험사업에는 실제 화물을 적재한 11.5t 화물차가 대구권역 내 CJ대한통운 서브터미널 4곳을 순환 운행한다.

다음 달에는 운행 스케줄 준수 여부와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운행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실제 화물을 운송하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운행 구간은 신호교차로와 차량·보행자 등이 혼재하는 도심 환경으로, 기존 고속도로 중심 자율주행보다 복잡한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다.

CJ대한통운은 도심 주행 과정에서 다양한 교통 상황에 대응하는 자율주행 기술과 실제 물류 운영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G-ROUND ART FAIR 2026

9.17

9.20

성도컨벤시아

Beyond Art

예술을 넘어서... 휴머니즘이 되다

글로벌 그라운드 아트페어 2026

| 주최  세계일보

| 주관 GAF조직위원회

| 후원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KOREAN FINE ARTS ASSOCIATION

문의 : 02-6743-3303

기업, 급전으로 빚 갚는다… 1~3년 단기물 72% ‘역대최대’

장기물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
지난달 회사채 70%가 빚돌려막기
은행·운용사, 2~3년물 중심 발행
국내 10대그룹 회사채 발행 잔액
201.5조 → 194.7조, 삼성만 늘어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달 29일 1500억원 모집을 목표로 기관을 대상으로 한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총 4800억원의 주문을 받았다. 만기별로는 2년물 800억원 모집에 2030억원, 3년물 700억원 모집에 2770억원이 들어왔다. 하나에프앤아이도 지난달 1.5년~3년 만기 회사채 발행을 앞두고 실시한 수요예측에서 모집예정액(1500억원)의 5배가량인 6870억원의 수요를 확인했다. IB 업계 관계자는 “3년물이 특히 흥행했는데, 절대금리 대비 발행물량이 적은 영향 등을 받았다”고 전했다.

1~3년 내 상환해야 하는 단기 부채, 이른바 ‘급전’을 빌리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특히 회사채보다 기업어음(CP)에 의존하고 있다. 조달 자금도 투자보다 빚 갚는 데 주로 쓰고 있다. 반도체 피크아웃



7월 크레딧 발행 시장에서 1년 초과~3년 이하 비중이 71.8%로 나타났다. /따능AI

(정점 통과) 우려 및 물가에 대한 걱정(긴축 확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기업들의 부채의 질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신한투자증권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7월 크레딧 발행 시장에서 1년 초과~3년 이하 비중이 71.8%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치다. 1년 이하 크레딧 비중은 21.5%로 올해 최저를 기록했다. 장기물도 찾기 힘들었다. 3년 초과~10

년 미만 비중은 5.7%, 10년 이상 비중은 1.0%였다.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기업들이 7월 한 달간 발행한 회사채 중 70% 이상은 빚 돌려막기였다. 김상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중장기물 발행 감소는 높은 차환비중과, 장기물 약세, 2~3년물 수요 쏠림 등의 영향이 크다”면서 “중장기물 발행 공백으로 2~3년 구간에 발행이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2~3년물 수요는 견고하다. 장외

크레딧 시장 큰손(비중 52.7%)인 은행과 운용사가 2.2~2.5년 사이 듀레이션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거대한 수급 주체로 떠오른 반도체 기업도 2~3년물 중심 크레딧을 끌러담고 있다. 김 연구원은 ‘A’등급 이하 기업들의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간 증권사발 공급 과잉은 유동성 대응이 취약한 하위등급의 신용 위험을 자극했지만, 현재는 단기 시장 정상화로 유동성 확보가 원활해진 상태다”면서 “단기 시장 참여를 통한 하위등급 유동성 대응력 개선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제와 시장이 좋을 때 이야기다. 회사 성장성을 담보로 대중에게 발행하는 회사채나 상환 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차입금에 비해 단기차입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의 유동성 리스크가 커진다. 재계 한 관계자는 “업황 침체에 경영실적 악화까지 겹치면서 차입을 늘려야 하는 기업들은 회사채 만기를 연장하기가 쉽지 않아 자사 단기차입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일부지만) 기관들도 기업들의 미래 전망을 아둬게 보기 때문에 만기를 짧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 중견기업 자금담당 임원 A씨는 “차입금 만기가 도래하면 롤오버(만기연장)해야 하는데, 향후 금리 인상시 비용이 증가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회사채 시장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올해 10대 그룹 중 회사채 발행이 늘어난 곳은 ‘삼성’뿐이다. 코스콤 CHECK에 따르면 국내 10대 그룹의 회사채 발행 잔액은 지난해 말 201조558억원에서 이날 194조7821억원으로 6조2737억원(3.1%)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5조5985억원(2.9%)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삼성의 회사채 발행 잔액만 23조1264억원으로 작년 말 19조2577억원보다 20.1% 증가했다. 한 시중은행 기업금융 관계자는 “기업들이 회사채를 안 찍는 것이 아니라 못 찍는 경우가 많다”며 “회사채 조달비용이 은행 조달금리보다 훨씬 높은 데다, 최소 AA급이 아니면 주요 투자자들이 잘 담지 않아 발행 여건이 상당히 나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채 발행을 의뢰하는 기업은 많지만 원하는 조건으로 인수해 줄 주체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삼성운용에 단일 레버리지 자산 59% 몰려

SK·삼성 단일종목레버리지 6.5조
잠정 운용보수 각각 18.5억, 11.8억
상대적 높은 연 0.27% 운용보수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삼성자산운용으로의 수익 쏠림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자산운용이 전체 평균 순자산의 약 59%를 운용한 가운데 운용보수는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자금이 가장 많이 몰린 데다 보수율도 주요 경쟁 상품보다 높았던 영향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27일부터 7월28일까지 63일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에서 발생한 잠정 운용보수는 총 36억6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이들 상품의 평균 순자산은 총 11조762억원이었다. 운용보수는 자산운용사가 ETF를 운용하고 관리하는 대가로 투자자 자산에서 차감하는 비용이다. 상품 거래량이 아니라 순자산 규모와 보수율에 따라 결정되

기 때문에 투자자가 손실을 보거나 거래가 줄더라도 순자산이 유지되면 계속 부과된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와 ‘KODEX 삼성전지 단일종목레버리지’의 평균 순자산은 각각 3조9831억원과 2조5412억원으로 총 6조5243억원에 달했다. 전체 16개 상품 평균 순자산의 58.9%에 해당한다. 두 상품의 잠정 운용보수는 각각 18억4900만원과 11억8000만원으로 총 30억2900만원이었다. 전체 운용보수에서 차지한 비중은 82.6%로 평균 순자산 비중보다 23.7%포인트 높았다. 이는 삼성자산운용 상품에 자금이 집중된 동시에 연 0.27%의 상대적으로 높은 운용보수율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삼성자산운용의 보수율은 연 0.07%인 하나·한화·KB·미래에셋자산운용의 같은 유형 상품보다 약 4배 높다. 평균 순자산 규모 2위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비교해도 차이가 뚜렷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와 ‘TIGER 삼성전지 단일종목레버리지’ 평균 순자산은 총 3조

7900억원으로 전체의 34.2%를 차지했다. 잠정 운용보수는 총 4억8500만원으로 전체의 13.2%였다. 두 상품의 운용보수율은 각각 연 0.07%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두 상품에서 2600만원의 운용보수를 기록했다. 이어 KB자산운용 2100만원, 키움투자자산운용 1300만원, 하나자산운용 700만원 순이었다. 인버스 2배 상품을 포함한 한화자산운용과 신한자산운용의 운용보수는 각각 4900만원과 35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화자산운용의 삼성전자 인버스 2배 ETF는 연 0.47%로 16개 상품 가운데 보수율이 가장 높았지만 평균 순자산이 559억원에 그쳐 운용보수는 4600만원을 기록했다. 단순히 보수율뿐 아니라 투자자 자금이 어느 상품에 몰렸는지가 운용사의 수익을 가른 셈이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증시 변동성과 개인투자자 손실을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달 31일부터 투자자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였다. 신규 상장과 광고도 중단하고 투자자 교육과 괴리율 관리 등을 강화했다. /허정운 기자



김성한 한국투자증권 사장이 지난 5일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린 ‘KIS Chat in Seoul’에서 글로벌 인재들을 대상으로 한국투자증권의 글로벌 진출 전략과 인재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도전정신, 글로벌 성장에 큰 힘 될 것”

김성한 한투증권 사장, 해외대생 만나
여의도 본사에서 채용설명회 진행
한국투자증권이 방향을맞아 귀국한 해외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채용설명회를 열고 글로벌 인재 확보에 나섰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해외 대학교 재학생 대상 채용설명회 ‘KIS Chat in Seoul’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외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에게 국내 증권업과 한국투자증권의 사업 및 직무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 현지 한인 학생회를 통해 행사 소식을 접한 해외대 재학생 약 160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글로벌사업과 기업금융(IB), 디지털 등 주요 직무의 역할과 실제

업무를 살펴보는 직무 설명회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이 현직자를 직접 만나 업무와 채용 과정 등에 관해 질문할 수 있는 상담 부스도 운영됐다. 김성한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참가자들에게 회사의 글로벌 진출 전략을 소개하며 “한국투자증권은 선진 금융시장에서 경쟁하며 글로벌 수준의 상품과 서비스 역량을 확보해 한국을 넘어 아시아 넘버원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여정에 함께 할 글로벌 인재가 필요하다”며 “낮선 해외 환경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해온 여러분의 도전정신이 한국투자증권의 글로벌 성장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해외대 전형회를 통해 글로벌 사업을 이끌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 /허정운 기자

“국민 5명 중 1명은 ‘토스증권’ 쓴다”

누적 가입자 1000만명 돌파
토스증권 계좌를 보유한 누적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2021년 3월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을 출시한 지 5년4개월 만이다. 출범 초기 2030세대에 집중됐던 고객층도 5060세대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토스증권은 지난 7월 계좌를 보유한 누적 가입자 수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고 6

일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약 5160만명을 기준으로 국민 5명 중 1명꼴이다. 2021년 3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출시한 이후 5년4개월 만에 거둔 성과다. 지난해 6월 누적 가입자 700만명을 기록한 뒤 13개월 만에 가입자가 300만명 더 늘었다. 지난 7월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650만명으로 집계됐다. 가입자 증가세는 중장년층에서 두드러졌다. 출범 초기 약 70%였던 2030세대 비

중은 현재 약 50%로 낮아졌으며, 40대 이상 가입자는 전체의 약 43%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50대와 60대 이상 신규 가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약 3배와 4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 신규 가입자가 약 2배 늘어난 것과 비교해도 가파른 증가세다. 토스증권은 모바일과 PC 기반의 간편한 사용자 환경을 구축하고 투자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AI 어닝콜’, ‘AI 시그널’, ‘실시간 이슈’ 등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허정운 기자

신한자산운용, TDF 시리즈 수탁고 2조 돌파

올해만 6000억 이상 자금 유입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중심으로 장기 자산배분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타깃데이터펀드(TDF) 시장도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신한자산운용은 은퇴시점에 맞춘 자산배분 전략과 시장 대응력을 앞세워 꾸준한 자금 유입을 이끌며 대표 연금

상품의 운용 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했다. 신한자산운용은 대표 연금 상품인 TDF 시리즈의 전체 수탁고가 2조원을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만 6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2017년 TDF 시장에 ‘신한마음편한적격TDF’ 시리즈를 출시한 이후 9년 만에 거둔 성과다. /신하은 기자 godhe@

공급망 전쟁시대… 초격차 기술 가진 ‘슈퍼 을’ 기업 키운다

산업부, 5년간 910억 R&D 자금 지원
2030년까지 ‘슈퍼 을’ 15개사 육성
패키지 기관 등 협력모델 5건 승인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을 선도할 독보적 기술력을 갖춘 ‘슈퍼 을(乙)’ 기업 5곳을 추가로 선정해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첨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협력모델에 5년간 910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6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1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세계 최고·최초 수준의 기술 확보를 지원하는 ‘제3기 슈퍼 을 기업’으로 ▲한화오션(잠수함용 연료전지 핵심장비) ▲선익시스템(AI 기반 OLED 자율증착장비) ▲이오테크닉스(초고속레이저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허 장 재정경제부 2차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승인, 제3기 슈퍼 을(乙) 선정 결과, 2026년도 소부장 시행계획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산업부

열처리장비) ▲에코프로비엠(전고체전지 용융화물계 고체전해질) ▲두산전자사업

(위성통신용 저손실 소재 및 안테나 모듈) 등 5개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과

제당 200억원 규모로 7년 이상의 대형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총 15개의 ‘슈퍼 을’ 핵심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간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한 신규 소부장 협력모델 5건도 새로 승인됐다.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주목받는 ‘유리 패키지 기관’과 초미세 공정 핵심 소재인 ‘1000W급 EUV 펄스 클’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협력모델 사업에는 5년간 총 910억 원의 R&D 예산이 지원되며,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금융·세제 혜택, 실증 평가 등 범부처 차원의 맞춤형 패키지 지원이 병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앵커기업이 초기 단계부터 생태계를 직접 설계하는 ‘생태계 완성형’과 지역 특화단지 간 시너지를 도모하는 ‘지역주도형’ 모델을 신설해 기술 협력의 외연을 크게 넓혔다.

이외에도 정부는 하반기 중 ‘소부장 핵

심전략지도’를 수립해 기존 200대 핵심전략기술 체계를 한층 더 고도화하고, AI 및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한 실증·사업화 지원체계를 대폭 확대하는 ‘2026년도 소부장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기술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도 연내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제2차 소부장 기본계획(‘26~’30)의 3대 역량(혁신·시장·생태계) 강화 전략이 슈퍼 을 기업 확대와 협력모델 다양화라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부장 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주요·공급기업의 다양한 협력수요를 반영하는 협력모델을 통해 소부장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부산항 스타트업, 싱가포르서 기술력 입증

창업지원 입주사 ‘언더워터솔루션’
글로벌 ‘스마트 포트 챌린지’ 선정

부산항만공사가 지원해 온 스타트업의 혁신기술이 싱가포르 연구기관의 인정을 받았다. 이 스타트업은 향후 싱가포르 현지 해양기업들의 자문을 받아, 사업화 기회를 모색할 기회를 얻었다.

공사는 ‘1876 Busan’의 입주기업인 ㈜언더워터솔루션이 싱가포르 PIER71 주관 ‘스마트 포트 챌린지 2026’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 및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

PIER71은 싱가포르 해사항만청과 싱가포르국립대학교가 공동 설립한 해양·항만 초기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기관이다. 스마트 포트 챌린지는 현장의 현안을 전 세계 우수한 기업들의 기술로 해결하는 창업 경진·육성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7년 시작 이래 매해 50여 개국 300여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언더워터솔루션은 부산항만공사가 해운·항만·물류 분야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운영하는 창업지원 플랫폼(시설물) 1876 Busan에 입주해 있다. 수중로봇과 인공지능 기반 해운·항만 및 해양산업의 수중작



‘1876 Busan’ 전경

/부산항만공사

업을 무인화·디지털화하는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선박과 항만 현장에서 무인수중 검사와 유지관리, 선급검사 대응 서비스를 자체 기술력으로 제공하고 있다.

언더워터솔루션이 제안한 기술은 ‘선급검사 대응형 수중로봇 선박검사 및 수중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다. 무인수중로봇으로 선박 수중부의 영상·음파탐지(sonar)·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인공지능으로 선체 오염, 손상 및 프로펠러 상태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더 나아가, 선박별 데이터를 통합해 검사·정비이력을 축적하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업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10주간 진행되는 PIER71의 기업 성장지원(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싱가포르 현지 해양기업들과 기술 검증 및 사업화 기회를 모색하는 일정이다.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싱가포르 해사항만청이 운영하는 실증·신제품 개발 지원금(원화 2억 5000만 원) 신청자격을 확보하고, 올해 11월로 예정된 최종 결선에도 진출한다.

공사는 그간 1876 Busan 입주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 마케팅 및 기술 홍보, 부산항 현장 실증 등 각종 지원을 추진해 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저어새 번식쌍 27% ↑… 남해안 첫 번식

국립생태원, 정밀조사 결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저어새’의 국내 번식 개체군이 1년 새 크게 늘어난 것은 물론, 그동안 서해안에 집중됐던 번식권이 남해안까지 확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올해 전국 저어새 번식지를 정밀조사한 결과, 국내 저어새 번식쌍이 전년도보다 크게 늘어나고 남해안에서 최초로 번식이 확인되는 등 개체군이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전국 번식지 조사에서 확인된 국내 저어새 번식쌍은 총 3300여 쌍에 달한

다. 이는 지난해(2600여 쌍)와 비교해 700여 쌍(약 27%) 증가한 수치다. 저어새는 전 세계 개체군의 90% 이상이 국내에서 번식하는 대표적인 해양성 조류로, 지속적인 서식지 관리와 민관 협력 기반의 보전활동이 개체수 급증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 서해안 무인도를 중심으로 형성됐던 저어새의 번식 권역이 남해안으로 넓어지는 의미 있는 변화가 포착됐다.

전남 순천시 순천만 인근의 ‘장구섬’에서 남해안 최초의 저어새 번식이 공식 확인됐으며, 한국물새네트워크의 제보를 통해 인천 영종도 매도랑에서도 신규 번식



동지에서 새끼를 육추 중인 저어새 /국립생태원

이 포착되는 등 국내 번식권 자체가 넓어졌다.

국립생태원은 안정적인 저어새 개체군 보전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인천 저어새 공존협약제’를 운영하며 관계기관, 지방정부, 민간단체와 함께 전국 번식지 정밀조사 및 서식지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세종=한용수 기자

반복시 예외 없다… 공정위, 고발원칙 강화

기업집단 신고·자료제출 고발지침 개정

앞으로 대기업 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이 계열사를 누락하거나 거짓 지정자료를 제출했을 때, “의무 위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크면 원칙적으로 형사 고발조치된다.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을 반복할 경우 예외 없이 고발하는 기준으로 신설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 고발지침은 위반 의무의 ‘인식가능성(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과 ‘중대성’을 함께 고려했다. 이로 인해 중대성이 크더라도 인식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중대성이 현저’하거나 ‘중대성과 인식가능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를 원칙 고발 대상으로 정했다. 인식가능성이 불분명해도 결과와 규모가 중대하면 고발 대상에 올려 대기업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인식가능성이 경미함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고발을 면할 수 있다.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그간 정황 파악에만 쓰이던 반복 위반 이력에 대해, 앞으로는 최근 3년 내 동일행위가 반복되면 원칙적으로 고발 조치한다.

동일인(총수)이 직접 상당 지분을 소유한 회사를 누락·거짓 기재한 경우는 ‘인식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로, 친족 소유 회사를 누락한 경우는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 세부 기준도 정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정자료는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이 되는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거짓 제출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및 사익추구 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수원, 필리핀 원전사업 협력 MOU 체결

신규 원전 예비타당성 조사·기술 교류

한국수력원자력(이하한수원)이 필리핀의 대표 민간 에너지기업인 아보이티즈 파워(Aboitiz Power Corporation)와 원전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동남아시아 원전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했다.

한수원은 지난달 31일 경주 본사에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최일경 한수원 사업총괄본부장과 다녔 아보이티즈 사장, 새턴 가린 필리핀 에너지 부 장관, 제리코 노그랄레스 필리핀 국영 전력공사 사장 등 양국 정부 및 기업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양사는 ▲원자력 기술 관련 정보 교류 ▲신규 원전 예비타당성 조사 협력 ▲교육·세미나 및 실무협의체 운영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필리핀은 급증하는 전력수요 대응

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원자력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며, 정부와 민간 전력기업이 함께 원전 후보 부지 공동조사를 진행하는 등 기반 마련에 나선 상태다. 아보이티즈 파워는 화력·수력·태양광·지열 등 다양한 발전원을 운영하는 필리핀 대표 민간 전력사다.

키를로스 라몬 아보이티즈 기업지원총괄책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원자력이 필리핀의 에너지 안보와 기저전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해하고 모색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최일경 한수원 사업총괄본부장은 “필리핀 원전 사업 협력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며 “한수원이 국내외 원전 건설과 운영을 통해 축적한 독보적인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보이티즈 파워와 긴밀히 협력해 필리핀의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신세계푸드, 이마트 자회사로 편입 ‘베이커리·노브랜드 버거’ 역량 집중

이달 상장폐지… 완전자회사 전환
베이커리 생산 인프라 대대적 확장
가맹 사업 ‘콤팩트 매장’ 차별화

신세계푸드가 이마트의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되며 그룹 내 식품사업 재편의 닳을 올렸다. 비주력 사업을 과감히 털어내고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베이커리’와 ‘노브랜드 버거’라는 두 핵심 성장동력에 역량을 집중한다. 지배구조 단순화를 기점으로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 유통·식음료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의지다.

신세계푸드는 지난달 이마트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이마트가 보유한 신세계푸드 지분율은 84.78%에서 100%로 확대됐다. 그리고 이달 중 자진상장폐지 이후 이마트의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전환된다.

이번 주식교환 과정에서 신세계푸드는 보유 중이던 자기주식 83만 7140주를 전량 소각해 발행주식 수를 303만 5340주로 줄였으며, 기존 주주들에게는 이마트 주식(주당 9만 9757원 기준)을 교부했다.

신세계푸드가 자진 상장폐지를 단행한 배경은 ‘중복상장 구조 해소’와 ‘경영 효율성 극대화’에 있다. 상장 유지에 따른 비용과 실적 부담을 덜어내는 등



노브랜드 버거 매장 전경. /신세계푸드

시에 그룹 온오프라인 유통 인프라와의 결합 속도를 높여 시너지를 내겠다는 복안이다.

실제로 신세계푸드는 지난해 12월 연 매출 2500억 원 규모의 단체급식 사업을 이뤄온 자회사(고메드글로벌리아)에 매각해 1154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수익성 개선에 한계가 있던 급식 사업을 정리하고, 제조 및 프랜차이즈 중심의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체질 개선을 마친 신세계푸드의 사업 구조는 이제 베이커리와 식자재유통, 프랜차이즈(노브랜드 버거)의 3대 핵심 부문으로 재편됐다.

이 중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곳은 단연 베이커리 사업이다. 이를 위해 생산인프라도 대대적으로 확장한다. 기존 서울

성수동 공장(약 500평)의 생산 기능을 인천 신규 생산거점으로 이전하는 것. 인천 공장은 성수 공장 대비 약 4배 규모로 다가오는 9월 착공에 돌입한다.

신세계푸드는 원재료 구매 경쟁력과 공정 자동화를 통해 원가를 낮춘 ‘가성비 제품’과, 냉동샌드위치·케이크 등 ‘고부가가치 차별화 제품’을 동시에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친다. 특히 이마트24, 스타벅스 코리아 등 그룹사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상품 기획 단계부터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프랜차이즈 부문에서는 ‘노브랜드 버거’의 가맹 사업 확장에 가속도를 낸다. 특히 지난해 5월 론칭한 소자본 창업 모델 ‘콤팩트 매장’이 주목된다. 이 매장은 약 15평 규모에 9000만 원 초반대의 투자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외식 자영업의 불확실성이 커진 시기에도 가맹점주의 초기 부담을 대폭 낮췄다.

인천 베이커리 신공장 가동과 노브랜드 버거의 다점포 출점이 본격화되는 내년 신세계푸드가 그룹 내 ‘캐시카우’를 넘어 종합 식품·유통 강자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롯데리아, 싱가포르 2호점 오픈

롯데GRS의 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가 싱가포르 2호점을 오픈하며 현지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 2호점은 쇼핑과 교통의 중심지인 주룽포인트몰에 약 60평 규모, 70석으로 조성됐다. 현지 고객들이 2호점을 이용하기 위해 줄지어 있다.

/롯데GRS

주요기업 2분기 실적

KT&G, 상반기 역대최대 매출

2분기 매출 1.7조, 영업이익 4145억
연간 실적목표 상향·주주환원 확대

KT&G가 해외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와 차세대 담배(NGP) 사업의 흥행에 힘입어 역대 상반기 최대 매출을 경신했다.

KT&G는 6일 기업설명회를 열고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조 7016억 원, 영업이익 414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9%, 18.5% 증가한 수치로, 특히 영업이익은 4개 분기 연속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나가며 탄탄한 수익 창출력을 입증했다. 이 같은 실적 호조에 힘입어 KT&G는 올해 연간 매출액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5~7%로, 영업이익 성장률 전망치는 6~8%에서 10~13%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그룹 전체의 성장을 견인한 것은 본업인 담배사업부문이었다. 담배사업 부문은 2분기 매출액 1조 2185억 원, 영업이익 3825억 원을 기록하며 각각 11.7%, 18.8% 증가했다. 특히 해외관련사업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이란전쟁 등 변동성 큰 대외 환경 속에서도 해외관련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9% 늘어난 5577억 원을 기록했

다. 영업이익 역시 판매 수량 증가와 전략적 단가 인상 효과에 힘입어 45.6% 급증했다. 국내관련사업 또한 상반기 시장점유율 67.9%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 자리를 공고히 했다.

차세대 성장 동력인 NGP(Next Generation Products) 사업 역시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국내 NGP 소비 확대와 더불어 지난 2월 출시된 ‘틸 에 이블 3.0’의 흥행으로 고가 스틱 비중이 늘어나면서, NGP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3.8% 증가한 2427억 원을 기록했다. 국내 시장점유율은 48.2%를 기록했다.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영위하는 KGC는 국내에서 잇달린 성적표를 받았다. 국내 매출은 가정의 달 프로모션 및 주요 브랜드 캠페인 효과로 7.8% 증가한 1742억 원을 기록했으나, 해외 매출은 중국 유통 재고 조정의 영향으로 496억 원에 그쳤다.

실적 개선에 발맞추어 주주환원 정책도 한층 강화된다. KT&G 이사회는 이날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중간배당금을 지난해 1400원에서 600원 인상한 주당 2000원으로 결의했다. 향후 이익 성장과 주주환원 여력을 고려해 기말배당금 인상 또한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신원선 기자

BGF리테일, 영업이익 849억… 22% ↑

매출 2.4조… 식품 중심 판매호조

BGF리테일이 우호적인 소비 환경과 식품 중심 상품 판매 호조에 힘입어 2분기 호실적을 거뒀다. 물류 파업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수익성을 개선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6일 BGF리테일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2조 42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849억원으로 22.3% 늘었으며, 당기순이익은 568억원으로 7.6% 증가했다.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는 매출 4조 5472억원, 영업이익 1230억원을 기록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6%, 33.7% 증가했다. 순이익은 861억원으로 30.1% 늘었다.

회사 측은 동일점 성장세가 확대되

는 가운데 물류 파업 관련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전년보다 강수일수가 적고 평균기온이 높았던 기상 여건과 소비심리 회복,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상품 구성 변화도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다. 음료와 아이스크림 등 여름철 고마진 상품 판매가 늘어난 데다 ‘깨먹는 디저트’ 시리즈와 ‘PBICK 더 키친’ 간편식 등 차별화 상품이 호응을 얻었다. 생필품 할인 행사도 매출 확대를 뒷받쳤다.

이에 따라 담배 매출 비중은 낮아지고 식품과 가공식품 비중은 각각 0.4%포인트, 0.9%포인트 상승하며 상품 구성 개선 효과도 나타났다.

/김서현 기자

CJ제일제당, ‘Food AI 360’ 글로벌 론칭

AI 기반 마케팅… K-푸드 경쟁력 강화
“소비자 니즈를 빠르게 제품으로 구현”

CJ제일제당이 AI를 활용해 식품 트렌드 분석부터 신제품 기획, 소비자 반응 예측까지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며 K-푸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CJ제일제당은 업계 최초로 실시간 트렌드 분석부터 마케팅, 상품 기획·개발, 소비자 반응 시뮬레이션까지 지원하는 AI 플랫폼 ‘Food AI 360’을 글로벌 론칭했다고 6일 밝혔다.

‘Food AI 360’은 식품마케팅실과 AX/DX담당이 공동 개발한 AI 기반 마케팅 인텔리전스 플랫폼이다. 기존에 분산돼

있던 트렌드 분석, 상품 컨셉트 개발, 시장 반응 모니터링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단순히 현재 유행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 관심 변화와 확산 가능성을 예측해 신제품 아이디어 도출까지 지원한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6월 국내사업부에 해당 플랫폼을 먼저 도입한 데 이어 글로벌 K-푸드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을 두 번째 적용 국가로 선정해 올해 6월 말 도입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미국 식품 시장과 소비자 반응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현지 트렌드를 제품 기획과 마케팅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게 됐다.

플랫폼의 핵심 기능인 ‘컨셉트 스튜디오’는 AI가 신제품 컨셉트를 생성하고 평

가까지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예측된 트렌드를 바탕으로 제품 방향과 주요 특징, 패키지 형태 등을 제안하며, 소비자 반응과 제품의 강점·보완점을 사전에 분석해 개발 효율과 의사결정 속도를 높인다.

회사는 미국을 시작으로 일본과 유럽 등 주요 권역에도 ‘Food AI 360’을 순차 도입해 글로벌 AI 기반 마케팅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Food AI 360’은 트렌드 발굴부터 소비자 평가, 상품화까지 전 과정을 AI로 연결해 개발 속도와 시장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니즈를 빠르게 제품으로 구현해 글로벌 K-푸드 성장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홍콩반점0410

‘돼지국밥짬뽕’ 전국 판매

더본코리아의 홍콩반점0410이 지역특화프로젝트 ‘팔도 홍콩반점’의 첫 메뉴인 ‘돼지국밥짬뽕’을 6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매장에서 한정 판매한다.

돼지국밥짬뽕은 부산 대표 향토 음식인 돼지국밥을 짬뽕으로 재해석한 메뉴로, 진한 국물과 푸짐한 돼지고기 토핑이 특징이다.

전국 판매 기간에는 배달의민족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돼지국밥짬뽕 주문 시 2000원 자동 할인이 적용되며, 10일부터 16일까지는 홍콩반점 메뉴 주문 시 5000원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신원선 기자

롯데백화점, ‘롯데타운 서머마켓’ 운영

16일부터 31일까지… 사전 예약제

롯데백화점이 여름 시즌 신규 콘텐츠인 ‘2026 롯데타운 서머마켓’을 처음 선보인다.

롯데백화점은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 잠실 롯데월드타워 아래나 잔디광장에서 약 1322㎡(약 400평) 규모의 ‘2026 롯데타운 서머마켓’을 운영한다.

롯데타운 잠실은 매년 겨울 크리스마스마켓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여름 시즌 행사인 서머마켓도 새롭게 선보인다. 회사는 서머마켓을 정례화해 여름

과 겨울을 대표하는 계절 행사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 서머마켓은 출시 30주년을 맞은 글로벌 IP ‘포켓몬스터’와 협업한 ‘포켓몬 메가페스타 2026: 포켓몬 별빛낙원’을 테마로 진행된다. 야외 잔디광장과 실내 공간을 연계해 여름철 소풍과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행사는 원활한 관람과 안전 관리를 위해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예약은 롯데백화점몰과 롯데ON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김서현 기자 seoh@

“ K-힐링 편의점 이야기 ”

뮤직 드라마

불편한 편의점 2

Always

2026.4.1 - OPEN RUN 후암씨어터

원작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2 (나무옆의자 2022) |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작사 박예슬 | 연출 승운 | 작곡·음악감독 서진영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박민서

주최·주관 극단 지우 | 기획 (주)지우컴퍼니 (주)제이엘컬처 | 후원 나무옆의자 출판사 waterfallstory | 예매처 NOLticket 티켓링크 | 문의 02-332-4902

티웨이, ‘트리니티항공’으로 새출발… 서비스 경쟁 박차

새로운 사업모델 ‘SSC’ 제시
합리적 운임보다 서비스 투자
소노그룹과의 시너지 확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티웨이항공이 ‘트리니티항공’으로 새 출발을 선언하고 새로운 사업모델인 ‘SSC(Service Standard Carrier)’를 내세웠다. 기존 LCC와 대형항공사(FSC)의 단순한 절충형이 아니라 가격 대비 더 높은 여행 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 중심 전략으로 차별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6일 트리니티항공은 서울 강남구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트리니티항공 브랜드 론칭·유니폼 런웨이’ 행사를 열고 새로운 브랜드 전략과 서비스 계획을 공개했다. 이상윤 트리니티항공 대표는 “내년부터 FSC 통합 대한항공과 LCC 통합 진에어가 출범하면 규모의 경제를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고객에게 다른 여행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6일 서울 강남구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열린 ‘트리니티항공 브랜드 론칭 & 유니폼 런웨이 행사’에서 승무원들이 위킹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의 방향이며 SSC도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과 같이 합리적인 운임만을 내세우기보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투자해 가격 대비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겠다”며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고객이 필요한 순간 가장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트리니티항공은 단거리 노선에서는 합

리적인 운임 체계를 유지하는 대신 중·장거리 노선에서는 고객 편의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 내 전용 라운지를 운영하고 기내 엔터테인먼트와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기내 인터넷(IFC)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기내식도 전면 개편한다. 기존 장거리 노선 중심에서 자카르타와 싱가포르 등 중거리 노선까지 확대하고 장거리 노선은 편도 2회, 중거리 노선

은 1회 기내식을 제공한다. 비즈니스 클래스에는 샐러드·과일·빵 등 사이드 메뉴와 와인·맥주 서비스를 추가하고, 이코노미 클래스도 샐러드와 음료 구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소노그룹과의 시너지 확대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호텔·리조트 인프라와 연계한 로열티 프로그램을 도입해 항공과 숙박, 레저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하고 고객의 여행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 유니폼도 공개됐다. 브랜드 대표 색상인 ‘트리니티 그레이’와 ‘보즈 골드’를 적용했으며, 기능성 소재를 활용해 장시간 근무에도 활동성과 착용감을 높였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새 서비스는 트리니티항공 브랜드로 운항을 시작하는 올해 하반기

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유혜은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metro



한국콜마, 佛 환경독성 시험 최종 통과

한국콜마는 최근 프랑스의 글로벌 환경독성 평가기관인 리프톡스의 환경독성 시험을 최종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자체 개발한 무기자차 및 유기자차 선케어 제형 2종을 대상으로 리프톡스 평가를 실시해 산화에 대한 무독성을 최종 입증했다.

/한국콜마



현대엔지니어링-중진공, 상생협력 맞손

현대엔지니어링은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산업안전·품질 중점지원 협업형 공제’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 김광민 구매전략실장(왼쪽)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조한교 인력성장이사(가운데)가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장애인고용공 ‘진로멘토링’ 호응 속 성료

장애학생 보호자 이해 제고 목적
온라인으로 총 3회 걸쳐 진행
1700여명 신청, 누적 조회수 2006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이 높은 관심 속에 마무리됐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학생이 진로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의 이해 및 역할 강화를 지원한다.

6일 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올해 고등학교 및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2026년 장애학생 보호자 진로멘토링’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학생의 진로 취업에 대한 보호자의 이해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2022년부터 매년 실시돼 왔다.

올해 멘토링은 ▲장애학생의 직장생활에 필요한 노동법 이해 ▲장애 자녀의 실제 취업 및 자립 경험 공유 ▲장애학생의 진로 결정과 취업서비스 안내 등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총 3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1700여 명이 신청했으며 온라인 누적 조회수도 2006회를 기록했다. 공단은 보호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진로·취업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장애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동국씨엠, 부산공장에 임직원 가족 초청

올해 중·고교생까지 대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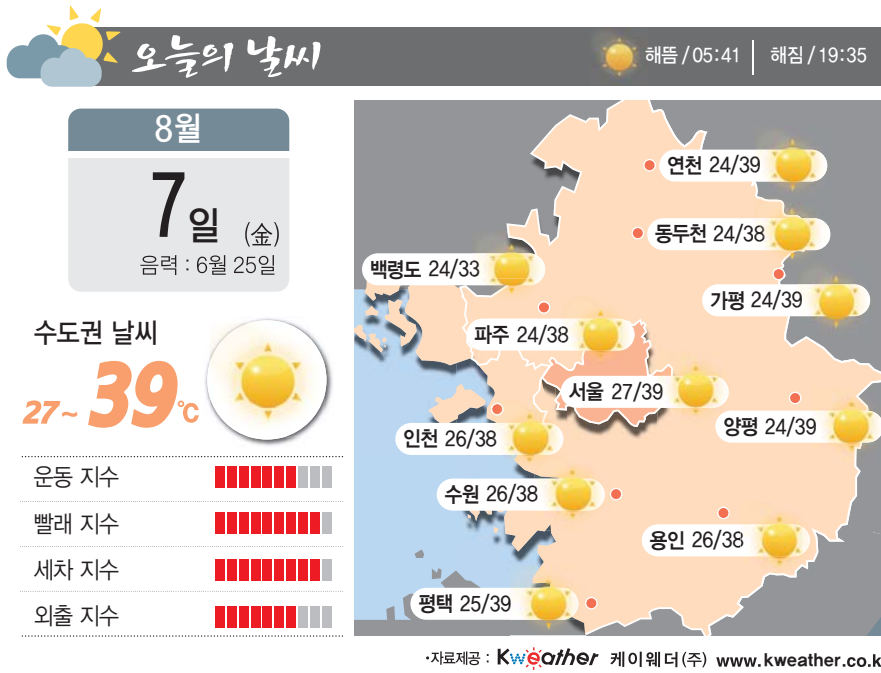
동국씨엠은 지난 5일 임직원 자녀와 가족을 부산공장으로 초청해 생산 현장을 체험하는 가족 참여 행사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룹 분할 출범 이후 세 번째로 마련된 가족 초청 행사다. 여름방

학을 맞아 자녀들이 부모의 근무 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임직원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기올하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교생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날 보호자 1인을 포함한 임직원 가족 200여명이 동국씨엠 부산공장을 찾았다.

/유혜은 기자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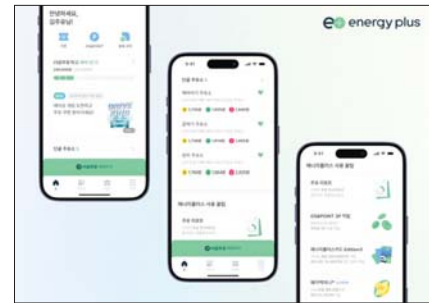
GS칼텍스,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 업종 1위

모바일 플랫폼 ‘에너지플러스’ 기반
고객 편의성 혜택 강화 등서 고평가

GS칼텍스가 고객 중심의 디지털 주유 서비스 경쟁력을 인정받아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주유소 업종에서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최근 국가고객만족도(NCSI) 주유소 부문 18년 연속 1위에 선정된 데 이어 브랜드 경쟁력도 입증했다.

GS칼텍스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한 ‘2026년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 조사에서 주유소 업종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NBCI는 소비자가 인식하는 브랜드인 지도와 이미지, 관계 구축력, 충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업별 대표 브랜드를 선정하는 지표다. GS칼텍스는 모바일 플랫폼 ‘에너지플러스’를 기반으로 고객 편의성과 혜택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연계해 주유 과정을 간소화하고 고객과의 접점을 확



에너지플러스앱 이미지.

대한 노력도 브랜드 신뢰도와 선호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가입자 250만명을 넘어선 에너지플러스는 결제 기능을 넘어 주유 전 과정을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표 서비스인 ‘바로주유’는 고객이 결제 수단과 주유 패턴을 미리 등록하면 주유소에서 주문과 결제를 간편하게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에 여러 단계로 나누었던 결제와 포인트 적립, 쿠폰 적용 절차를 하나로 통합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원관희 기자 wkh@

네이버 해피빈, ‘강릉 도란도란 장터’ 열어

강릉 소상공인과 소비자 연결

네이버 해피빈이 강릉 지역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지역 상생 프로젝트 ‘강릉의 다정함을 담은 도란도란 장터’를 연다.

6일 네이버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해피빈 온라인에서 진행된다. 오는 7일부터 9일까지는 강릉 감자시장(강릉시 금학동)에서 전통 삼일장 형태의 오프라인 팝업도 함께 운영한다.

‘도란도란 장터’는 해피빈의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시리즈 다섯 번째 프로젝트다. 2025년 통영을 시작으로 제주, 수원, 영덕에 이어 이번에는 강릉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관광객 소비가 유명 관광지 중심으로 집중되는 강릉에서 골목 상권 소상공인의 브랜드를 알리고 새로운 판로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소비자는 온라인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상품과 브랜드 스토리를 접한 뒤 오프라인 팝업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빙그레, RCY 전국캠프에 1억·제품 후원

빙그레는 2026년 RCY 전국캠프에 후원금 1억원을 전달하고, 메로나를 비롯한 아이스크림과 유음료, 스낵 등 대표 제품을 참가자들에게 간식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RCY 전국캠프는 전국의 RCY 청소년과 지도자가 참여하는 대표적인 전국 단위 행사로, 인도주의와 안전을 주제로 한 교육과 지역 문화 탐방,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구성된다.

/빙그레



엔젤투자협, 초기 창업 생태계 연구 추진

한국엔젤투자협회(엔젤투자·창업생태계연구소(RISE))를 열었다. 6일 엔젤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번에 설립한 RISE(Research Institute for Startup Investment & Entrepreneurship)는 ▲엔젤투자자와 초기 창업 생태계 연구 ▲기술창업과 기술벤처 생태계 연구를 양대 핵심 축으로 삼아 정책 제언 및 현안 조사 연구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엔젤투자협회



하나은행, 어린이 경제 뮤지컬 공연

하나은행은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북합문화공간 H-Pulse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 경제 뮤지컬 ‘재크의 요술지갑’을 공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크의 요술지갑’은 하나은행이 미래 세대 금융교육을 위해 2007년부터 운영해 온 어린이 경제 뮤지컬 프로그램이다. /하나은행



AI·CLOUD·DATA
연계플랫폼 평생교육원

2026 차세대 AI·디지털 트윈 실무 인재 양성과정 1기

2026년 8월 31일 ~ 2027년 3월 04일



모집 개요

과정명: 차세대 AI·디지털 트윈 실무 인재 양성과정 1기
교육기간: 2026년 8월 31일 ~ 2027년 3월 04일
교육시간: 월~금, 09:00 ~ 18:00
교육장소: AI-CLOUD-DATA 연계플랫폼 평생교육원
교육원 위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4 메타빌드 제2사옥 4층
상담 문의: 010-5155-8299

지원 자격 및 혜택

학력·전공 무관! 비전공자 및 인문계열도 기초부터 입문 가능
우대 사항: Python, Java 등 프로그래밍 기초 수강생 우대
추천 대상: IT/빅데이터/AI/ITS/데이터엔지니어 직무 취업 희망자
교육비 혜택: 총 수강료 40만원(훈련장려금 매달 수령 가능)

주요 교육 내용

총 1,000시간 중심의 실무 및 프로젝트 교육

AI 서비스 연계기술(ESB/API/MCP/A2A), Node.js/Express 기반 웹 응용
Python/JAVA/바이트코딩 기반 데이터 분석, RESTful API 설계
React 기반 프론트엔드 개발, 데이터베이스 및 GIS 기반 데이터 처리
생성형 AI·GPT·LLM 실무 교육, 디지털트윈 서비스 구현 등

신청 및 문의

신청방법: 메타빌드 AI-클라우드-데이터 연계플랫폼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신청
* 산대특 4기 - 홈페이지 신청 (QR코드 연계)



수업과정
상세보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탐욕과 사기의 굴레



이승환의
어드바이스

누구나 돈을 좋아한다. 사람은 대가 없이 얻는 이익에 강하게 끌린다. 심리학적으로도 ‘공짜’나 ‘횡재’라는 말은 쾌감 중추를 자극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 눈앞에 지나치게 매력적인 제안이 나타나면 평소 침착한 사람도 일단 마음이 들뜨고 경계심이 풀어지기 쉽다. 이런 심리를 노린 것이 각종 투자 사기와 ‘뚝박의 행운’을 방자한 사기 수법이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수 조 원대 사기극 ‘조희팔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 조희팔 일당은 2004~2008년 사상 최대 규모의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였다. “의료기기 렌탈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40%의 이자를 주겠다”는 터무니 없는 조건으로 무려 7만명에게서 4조 원 넘는 돈을 끌어 모았다. 조희팔 일당은 범행 이후 종적을 감췄고, 많은 사람들이 파는물을 흘렸다. 피해자 중에는 교장, 교수, 판사, 경찰 등 사회 지도층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 다들 속았을까”라며 개탄했다. 결국 “누구든 탐욕 앞에서는 눈이 멀 수 있다”는 냉혹한 진실을 확인했다.

사기범들은 “지금 안 하면 영영 못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찬스예요” 같은 말로 피해자를 다급하게 몰아붙여 빠른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한다. 피해자는 조급한 마음에 냉정을 잃고 덥석 계약서에 사인해 버리기 쉽다. 지나친 자신감과 과신도 문제다. 스스로 나는 남들보다 투자에 밝아라고 믿거나, 내부 정보를 아는 ‘선수’라고 착각하는 순간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투자 사건인 폰지(Ponzi) 사기 역시 예외 없이 탐욕과 과신이 만들어 낸 산물이다. 2008년 미국에서는 금융인 버나드 메이도프가 수십조 원대의 초대형 폰지 사기를 벌여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고정 고객들에게 연 10%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수십 년간 제공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뒤에 들어온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했다. 많은 글로벌 부호들과 기관투자자까지 그의 고객이었다. 너무 오랫동안 일관되게 좋은 성과를 내는 투자처는 오히려 의심해야 마땅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투자자들은 자기만족에 빠져 경고 신호를 무시했다.

‘낮은 위험으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은 99% 사기라고 봐야 한다. 투자 세계의 기본 원리는 고수익일수록 고위험이란 원칙을 명심해야 한다. 누군가 “절대 손해볼 리

없다”고 장담한다면 그 말 자체가 이미 거짓이다. 세상에 위험 없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변에서 “남들은 모르는 확실한 기회”라는 말이 들리면 우선 의심부터 해야 한다. 잠깐 체면이 구겨지더라도 금융전문가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 문의해 그 투자가 정당한 지 따져봐야 한다. 선뜻 남을 믿고 거액을 맡겨 버리는 것은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사기범들이 그럴듯한 권위와 확신에 차서 투자자를 현혹할 수록 피해 규모는 더 커진다. 이미 어떤 대상에 투자했는데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든다면 미련 없이 발을 빼는 용기가 필요하다. 손실이 발생했음을 일찍 인정하면 작은 피해로 끝날 일을 욕심과 집착 때문에 견잡을 수 없는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 한 번 잃은 돈은 잃은 것일 뿐 배당한다고 돌아오지 않는다. 오히려 손실을 빨리 인정하고 발을 빼야 추가 손실을 막을 수 있다.

눈앞의 유혹을 이겨내고 자신의 탐욕을 직시해야만 사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공짜 치즈는 쥐뿔에만 놓여 있다’는 서양 속담이 있듯 너무 달콤한 제안에는 처음부터 경계심을 갖는 것이 최선임을 명심해야 한다.

/ ‘사기 프로파일링’ 저자

수익률 ±2배와 손절매 권하는 사회



김연세
(정책사회부)

이번은 없었다. 외국인은 결국 팔아 차웠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지주의 수직상승 국면에 끼여든 레버리지 신상(新商). 게임의 결과는 개인 패. 그냥 진 게 아니라 참패하며, 이 상품 도입에 따른 과징이 사회적 문제로 번졌다.

외국인의 입장에 한번 서 본다. 한국 금융당국이 투기성 짙은 파생상품의 출시를 돌연 승인했다. 본주 상승분을 2배(하락분도 2배)로 쳐준다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다. 그리고 코스피가 5000 넘나든다는 소식에 물려든 개인. 이 레버리지 ETF에 수천씩 넣은 사람들이 많다. 여기에서 페르시아만을 향한 백악관의 변덕이 키운 변동성. 이런 기회 자주

오는 게 아니다. 큰손들이 큼직하게 나눠 가질 찬스. 팔고 퇴장한 선수는 외국 사람이 아닌 해외(다국적) 펀드.

국내 기관 입장을 추정해 본다. 본주에 더해 ETF까지, 국민적 열풍에 힘입어 수개월간 하루가 멀다 하고 폭발한 거래량. 뒤따르는 거래·운용 수수료. 이는 기관투자자 중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이 챙기는 몫. 또 주가의 이례적 고공행진에 더없는 공매도 기회. 외인이 날 잡아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관창다. 굴리는 돈 막대한 연기금이 빈 독 채워 준다. 정부 측 위치에 서 본다. 대학 새내기부터 여든 노인까지 스마트폰 MTS 창 들여다보는 게 일상. 국민 재산의 손익에 관계없이, 거둬들이는 증권거래 세수입이 어마어마하다. 주경 집행으로 축소된 재정여력 만화에 일조한다.

과거증권사 객장에 울음소리 들리면(유모차 고객 빔탄 일각의 비아냥) 끝물이라 했다. 아주 불쾌한 주식 격언이다. 또다시 그때와

닮아 있다. 자본시장 내 졸렬한 역사의 되감기다. 아나나 다를까 외신의 조롱 섞인 평가까지 나오는 시점에 이르렀다. 단, 내국민의 부(富)를 그들 국적의 펀드가 흡입해 간 사실에 대해선 모르쇠. 한술 더 떠, 한국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나라도 있다.

가정해 본다. 만약 국내 시장에 공매도·인버스 같은 게 없다면. 또 신용·미수 거래도 허용되지 않는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쉽게 수익 낼 수 있을까. 게다가 개인 다수가 급전 아닌 여유자금으로 중장기 투자한다면. 못판다 그들은. 그래서 공매도 등이 존재하고 옵션에 선물은 물론, 희한한 파생상품이 배출되는 것. 그리고 ‘손절’이라는 말. 손실 줄여야 한다며 누군가 매도를 권유한다. 실제 팔면 손실 확정인 것을. 뺏으면 이득 본 거고 잃었으면 그냥 손해일 뿐. ‘아서 손해 보여요.’ 꾸민 글귀와 갑절 레버리지 등은 능란하게 현혹한다. 재미를.

/ 세종=kys@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7일 (음 6월 25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지는 격입니다. 60년생 큰 일을 꾸꾸지 말고 분수를 지키세요. 72년생 외롭고 서러운 마음입니다. 84년생 안정을 취하고 힘을 비축하세요.



49년생 건강을 각별히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61년생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73년생 칭찬이나 용돈을 받습니다. 85년생 찾고 있는 것은 동쪽으로 가면 찾을 수 있겠습니다.



50년생 하는 일마다 길하니 재물이 저절로 쌓일 것입니다. 62년생 근신하고 조심하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74년생 뜻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86년생 주위의 유혹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51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지 않는 운입니다. 63년생 노력하지만 보람없이 무너집니다. 75년생 재난과 수난을 겪게 되니 수심만 가득하다 하겠습니다. 87년생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52년생 원통할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64년생 귀하의 사업이 차차 진전이 있습니다. 76년생 희망하는 직종을 찾았으나 능력이 부족합니다. 88년생 매사가 기로에서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53년생 새로 시작하는 사업, 일사천리로 풀립니다. 65년생 자식에게 경사가 있습니다. 77년생 인연이 없으니 잊는 것이 상책입니다. 89년생 연수가게 되어 이상형이 성만나게 됩니다.



54년생 하던 일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운입니다. 66년생 뭇든지 능동적으로 임하세요. 78년생 매사 지치고 희망이 안보여 쉬고 싶습니다. 90년생 싸움이 시작되면 폭행으로 번집니다.



55년생 동남간에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67년생 교통사고를 조심하세요. 79년생 일에 있어서 너무 급하게 나아가지는 마세요. 91년생 직장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56년생 건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8년생 승진운이 매우 강합니다. 80년생 외출을 삼가하세요. 92년생 전화위복이란 이럴때 쓰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57년생 허황되게 갖지 못할 물건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69년생 병을 앓고 있다면 그것은 질병입니다. 81년생 의욕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습니다. 93년생 좋지 않은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8년생 유혹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70년생 공로를 취하려는 자리라 의지가 솟구칩니다. 82년생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됩니다. 94년생 기분좋은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59년생 가까운 이들이 떠나는구나. 기도하세요. 71년생 매사에 조심하세요. 83년생 두번, 세번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5년생 부정한 방법은 마음에 담아 두지 마세요.



김상회의四季

기분 좋은 사람

만나면 항상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다. 같은 말을 해도 긍정의 바이브와 힘을 주는 사람들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젠슨 황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얼마 전에도 한국을 다녀갔지만, 유명 연예인 못지않은 재계의 셀럽인 것이다. 그 유명한 차진 회동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 IT 재벌 중에서도 대만 출신이라 같은 동양적 정서도 있어서겠지만 남다른 안목과 견식, 유머와 통찰을 보여준 사람이다. 은혜에 대한 고마움도 알고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도 더 한강의 기적을 높이 평가하는 느낌도 받았다. 지난해 한국방문을 앞두고 엔비디아 본사 공식 유튜브 계정에 돌연 ‘한국의 차세대 산업 혁명’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을 때도 역사상 가장 빠른 산업화를 이룬 기적의 나라로서 칠강, 반도체, 전자제품, 선박, 자동차, 그리고 기술을 통해 전 세계 각국에 한국의 이름을 알렸다면 진정을 담아 칭찬한 것이다.

솔직히 우리나라가 과거의 최빈국에서 OECD 10위 안에 드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가 노련한 분야에서 앞서나가는 정도가 그 정도인지까지는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이며 필자 역시 그러했다. 외부의 그가 나의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한 것 일으켜 준 것이다. 세계적으로 성공을 했음에도 어려운 적 과거를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정작 우리도 기억하지 않는 은혜를 소환하는 그를 어찌 달리 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역학도로서 살펴본 그의 사주는 일단 임술(壬戌) 일주에서 그 특징이 명확하다. 강한 백호살의 기운이 위기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버텨내는 강한 승부욕을 보여준다. 과거 그가 여러 번 파산 위기를 뚫음에도 위기를 돌파하는 모습은 그의 사주에서 보이는 식상생재(食傷生財)의 기운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3				4	6	
					5			
		5		6	1			8
		8	5		2		4	
	6		3		7	9		
4			9	7		3		
			2					
	3	2				7	5	

			5		9	8		
			2				3	
5						1	9	7
3					1			8
		5				6		
1			3					2
7	6	2						4
	1				5			
		4	7		2			

6	9	2	9	7	1	2	8	8
7	1	8	8	9	2	2	6	9
9	2	8	8	2	6	1	9	7
2	8	6	2	1	8	7	9	9
1	2	9	7	8	9	6	2	8
8	7	9	2	6	9	8	1	2
8	8	2	1	9	2	9	7	6
2	6	1	9	8	7	9	8	2
9	9	7	6	2	8	8	2	1

1	9	8	2	8	2	7	9	6
6	2	2	9	9	7	8	1	8
7	8	9	8	6	1	2	9	2
2	7	6	9	9	8	2	8	1
8	1	9	2	7	8	9	6	2
8	9	2	1	2	6	9	7	8
2	6	1	7	8	9	8	2	9
9	8	7	8	1	2	6	2	9
9	2	8	6	2	9	1	8	7

바르바레스코의 시대가 왔다… 힘을 이긴 우아함



안 상 미 기자의

Why, wine 337

덜 달고, 담백하게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찾듯 와인 입맛도 바뀌었다. 기름기 많고 진한 소스의 음식엔 진득하고 묵직한 와인이 잘 맞았겠지만 이제 어떤 음식에도 마시기 편하게 힘을 내세우지 않고, 우아함과 균형감이 미덕이 됐다. 왕의 시대가 가고 여왕의 시대가 시작됐다.



이탈리아 와인너리 펠리세로를 이끌고 있는 지오르지오 펠리세로

이탈리아 와인너리 펠리세로를 이끌고 있는 지오르지오 펠리세로(Giorgio Pelissero·사진)는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같은 네비올로 품종이라도 바르바레스코는 포도밭이 언덕에 위치하고 개방형 계곡에서 바람이 잘 불어 힘은 있지만 내세우지 않고, 우아한 와인을 만든다”며 “하지만 강한 지역이 바로 바르바레스코”라고 강조했다.

바롤로는 알아도 바르바레스코는 아직 접해보지 못한 이들도 많을 터. 둘 다 이탈리아 북서부의 와인 명산지 피에몬테에서 네비올로 품종 100%로만 와인을 만들다보니 비교해 이해하는 것이 머리에 더 잘 들어온다.

바르바레스코는 3개 마을이 전부다. 트레이소와 바르바레스코와 네이베다. 펠리세로가 자리잡은 트레이소가 그 중 크다지만 언덕 하나 정도라고 보면 된다.

바롤로는 일단 지역 자체가 더 넓다. 11개 마을에서 약 400곳의 와인너리가 연간 1500만병 정도를 생산한다. 몸집이 되다 보니 마케팅 활동도 활발했고, 그만큼 일찍부터 국제 무대에서 존재감을 키울 수 있었다.

바르바레스코의 연간 생산량은 바롤로



(왼쪽부터)펠리세로 바르바레스코 누비올라 2017, 펠리세로 바르바레스코 투린 2017·2015, 펠리세로 바르바레스코 바노투 2017·2009, 펠리세로 모스카토 다스티 2025. /안상미 기자

의 3분의 1인 500만병에 그친다. 200여 생산자가 있지만 주요 20곳이 그 절반을 담당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나머지 180곳은 연간 1만 병 이하를 만든다. 그러니 와인을 알리는 활동도 극히 제한적이었고, 바르바레스코 와인의 진수를 경험하기도 힘들었다.

와인 스타일 역시 같았다. 바롤로가 단단한 타닌을 바탕으로 강한 구조감과 장기 숙성력을 내세웠다면 바르바레스코는 상대적으로 섬세한 타닌과 우아함이 특징이다. 바롤로를 ‘와인의 왕’, 바르바레스코를 ‘와인의 여왕’이라 부르는 것도 그래서다.

지오르지오는 “우아하고 더 접근성이 좋은 것이 바르바레스코 와인”이라며 “현재 글로벌 와인 시장의 트렌드에도 잘 부합한다”고 말했다.

1세대인 할아버지도 포도를 재배했지만 가문의 이름을 걸고 와인을 내놓기 시작한 것은 2세대가 경영을 맡은 1960년부터다. 지오르지오는 3세대다. 세대를 거치며 5ha의 포도밭은 45ha까지 늘어났다.

그는 “펠리세로는 테루아가 그대로 드러나는 와인을 만들도록 접근한다”며 “포도밭이 위치한 언덕의 특성을 알고 있다면 펠리세로 와인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와인의 여왕이란 애칭에 딱 맞는 ‘펠리세로 바르바레스코 누비올라 2017’부터 시작한다. 누비올라는 지금의 네비올로를 말한다. 1330년에 당대 최고의 포도 품종으로 누비올라가 소개됐다. 6곳의 작은 구획을 섞어 만들었는데 바르바레스코 네비올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잘 익은 자두같은 과일향과 꽃향에 타닌은 부드럽다.

‘펠리세로 바르바레스코 투린’은 2017 빈티지와 2015 빈티지를 비교 시음한다. 투린은 포도밭 이름으로 바위가 많고 언덕에서 가파른 경사면에 위치했다. 와인에는 이 환경이 그대로 녹아들어가 돌미네랄이 느껴지고, 허브향과 함께 타닌 존재감도 여전했다. 10년 안팎으로 숙성됐지만 산도와 구조감 모두 정정해 향후 10년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다.

‘펠리세로 바르바레스코 바노투’는 2017 빈티지와 2009 빈티지의 비교다. 바노투는 1세대 할아버지 지오르니 펠리세로의 애칭이다. 절제된 과실향 대신 장미와 민트, 캐모마일 같은 허브향이 가득 채워지고, 좋은 산도에 두께감 있는 벨벳같은 타닌이 얹혀졌다.

/smahn1@metroseoul.co.kr



metro

문화 단신

단독 콘텐츠에 밤샘 상영까지… 영화관서 무더위 식히자

롯데시네마, K-애니메이션 2편 선배 메가박스, 돌비 특별관 액션대작 상영 CGV, 누워서 영화 보는 ‘올무비나잇’

올해 8월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극장가가 관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CGV 등 주요 멀티플렉스 3사는 각기 독점 콘텐츠, 첨단 특화관, 심야 상영회 등 차별화된 무기를 전면에 내세우며 여름 극장가 흥행 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롯데, ‘롯데시픽’ & ‘광음시네마’

롯데시네마는 8월 단독 개봉작 라인업인 ‘롯데시픽’과 음향 특화관 ‘광음시네마’를 통해 시청각적 쾌감을 선사한다.

‘롯데시픽’은 탄탄한 서사의 K-애니메이션 2편을 선보인다. 역대 한국 애니메이션 1위 ‘마당을 나온 암탉’의 감독들이 기투합한 ‘길 위의 문치’(8월 19일 개봉)는 도경수, 박소담, 박철민의 목소리 연기에 체코 오케스트라의 장대한 연주가 더해져 깊은 울림을 전한다. 이어 8월 26일에는 판타지 케이팝 애니메이션 ‘고스트 밴드’가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관객들을 찾는다.

초극저음 우파를 탑재한 ‘광음시네마’에서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8월 5일 개봉)와 개봉 1주년을 맞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8월 26일 재개봉)이 상영되어 관객들에게 압



롯데시네마 롯데시픽 ‘길 위의 문치’



메가박스 돌비 시네마.



CGV 올무비나잇.

도적인 사운드 체험을 선사한다.

◆메가박스, ‘돌비 시네마’ 액션 쾌감

메가 박스는 ‘돌비 시네마’와 ‘돌비 비전+애프트스’ 특별관 등 총 14개 지점에서 화려한 색감과 공간감 넘치는 사운드로 무더위를 날릴 액션 대작들을 상영한다.

현재 상영 중인 마블의 기대작 ‘스파이더맨: 브랜 뉴 데이’를 비롯해, 10년간의 장대한 여정을 담은 놀란 감독의 대작 ‘오디세이’(8월 5일 개봉), 아라크전 참전 실화를 다룬 ‘위페어’(8월 19일 개봉), 미지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투를 그린 ‘오크스트리트의 마지막 날’(8월 26일 개봉)까지 짜릿한 모험이 관객들을 기다린다. 특히 ‘오디세이’ 관객들에게는 선착순으로 돌비 포스터가 증정된다.

◆CGV, 심야 축제 ‘올무비나잇’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관객들을 겨냥한 이색 심야 행사도 마련됐다. CGV는

오는 8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전국 3개 토크시네마(용산아이파크몰, 압구정, 센텀시티)에서 ‘올무비나잇 with TEMPUR’를 진행한다.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 50분까지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편안한 템퍼 매트리스와 모션베드에 누워 ‘오디세이’와 ‘스파이더맨: 브랜 뉴 데이’를 연속 관람하는 심야 상영회다. 관람객에게는 템퍼 여행용 목 베개(14일)와 수면 안대(15일) 등 특별 굿즈도 증정되어 한여름 밤의 색다른 ‘극장스’를 선사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영화관이 단순한 관람 공간을 넘어 무더위와 열대야를 피하는 대표적인 피서지로 자리 잡았다”라며 “오직 극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보적인 콘텐츠와 프리미엄 체험이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지구 바꾼 혁신과 파괴의 ‘인류 문명사’

예일대 석좌교수, 수십년간 연구 담아 800년 역사 속 세 번의 전환점 분석

인류가 일궈낸 눈부신 번영은 어떤 선택과 대가 위에서 세워진 것일까. 환경사와 세계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수닐 암리스 예일대학교 역사학 석좌교수가 수십 년간의 연구를 집대성한 역작 『번영의 대가』가 번역 출간됐다.

이 책은 몽골제국의 영토 확장부터 대항해시대, 산업혁명, 양자 세계대전을 거쳐 오늘날의 기후위기에 이르기까지 지난 800년의 인류 문명사를 ‘혁신과 파괴’라는 입체적 시선으로 재조명한다.

저자는 인류 문명이 지구 환경을 재편해온 과정을 세 번의 거대한 전환점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첫 번째 전환으로는 ‘세계의 연결’을 지목했다. 13세기 유라시아를 횡단한 몽골 제국과 이후 대항해시대를 거치며 단절되어 있던 대륙과 생태계가 하나로 연결됐다는 것이다. 아메리카의 작물이 유라시아로 건너가 인구 폭발을 이끌어낸 한편, 식민주의와 전염병, 대서양 노예무역,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인해 신대륙의 원주민 90%가 목숨을 잃고 자연이 자본의 논리에 편입되는 비극이 시작됐다.

두 번째 전환으로는 ‘자원의 수탈과 가속’을 지적했다.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 질소비료 개발, 위성 발전에 힘입어 인류는 빈곤과



번영의 대가

수닐 암리스 / 추선영 옮김 / 이북 출판

기근을 극복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산림이 파괴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증했으며, 양자 세계대전을 치르며 가속화된 산업 생산 체계는 자연을 대대적으로 수탈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세 번째 전환으로는 ‘지구 체계의 재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개된 대량생산-대량소비 사회는 인류에게 기아 극복과 수명 연장을 가져다주었지만, 아마존과 동남아시아의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지구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기후위기를 초래했다.

저자는 방대한 1차 사료와 40여 개의 지도·사진,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세계사의 주류에서 소외되었던 남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의 이주민과 노동자들의 삶을 조명한다. 이를 통해 현대의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과거의 역사적 선택들이 축적된 결과임을 차분히 증명해 낸다.

576쪽. 3만2000원

메트로 한줄뉴스



▲ ‘심즈’ EA 새 주인에 사우디 국부펀드·트럼프 사위…기업가치 78조

▲ 美재무부, 이란 혁명수비대 연계 이라크 항공사 제재 풀어 /사진 뉴시스

▲ 美국무부 “미국인 안전 위해 北여행금지 유지…조건 없는 대화 열려있어”

▲ 중부 유럽도 41도 ‘펄펄’…거대 빙하 녹아 폭포수로

▲ ‘연료난’ 러시아, 환경 등급 낮은 휘발유 판매 허용

▲ “비만약으로 살 빼다가 사람이 죽었어요”…사망 연관 신고, 영국서만 153건



공급망 전쟁
독보적 기술력 갖춘
‘슈퍼 윌’ 기업 키운다
L1

metro®

Life

신세계푸드
이마트 자회사로
식품사업 재편
L2



하늘 위에서… 숲길 거닐며… 단지 안 두 가지 풍경 담다

아파트의 미학(美學)

운정중앙역 동문 디이스트

푸른 하늘이 펼쳐진 화창한 여름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를 타고 서울역을 출발한 지 20분 만에 종착역인 운정중앙역에 도착했다. 역을 나와 새 아파트와 공사 현장이 이어지는 운정신도시 길을 10분가량 걸으면 ‘운정중앙역 동문 디이스트’가 보인다.

단지 앞 수변 공간에는 파란 하늘의 흰 구름과 단지가 한눈에 들어왔다. 물기를 따라 시선을 올리자 1205동과 1206동 꼭대기를 잇는 스카이브릿지가 가장 먼저 눈에 다가왔다. 두 건물 사이 허공을 가로지르는 조망카페는 커다란 문을 낸 듯한 모습이었다.

경기 과천시 동패동 운정3지구 A22블록에 들어선 운정중앙역 동문 디이스트는 지난 20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고 동문건설이 시공한 공공분양 아파트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10개 동, 642가구 규모다. 주택형은 전용면적 74㎡와 84㎡로 구성됐다. 모든 가구가 중형 면적으로 설계됐으며 지역난방 방식이 적용됐다.

단지에서 GTX-A 운정중앙역까지는 지도 상 약 559m로, 걸어서 10분 안팎이다. 1205동과 1206동 위로는 두 동을 연결하는 조망카페가 놓였다. 건물 사이를 가로지르는 공중 연결 공간으로, 단지 전경을 바라보며 휴식하거나 입주민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

커뮤니티시설은 휴식과 운동, 학습 기능을 두루 갖췄다. 작은도서관에는 성인 독서공간과 유아·어린이도서관, 열람실 2곳, 미디어실이 마련됐다. 운동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와 단체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G.X룸이 들어섰다.

단지 안에는 시립이음어린이집이 조성됐고 인근에는 올해 3월 개교한 문향기초등학교가 있다. GTX-A 운정중앙역 주변 상업·문화시설과 운정호수공원, 삼학산 등 생활·자연 인프라도 이용할 수 있다.

정문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회백색 계열로 정돈된 외벽이 보인다. 창호와 난간도 검은색이나 짙은 회색으로 통일해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깔끔한 인상을 준다. 외벽 하부와 커뮤니티시설 주변에는 벽돌을 쌓아 올린 듯한 짙은 회색 마감재가 사용됐다. 밝은 상층부와 대비되면서 건물 아래쪽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모습이다.

단지 안으로 들어서면 주동 사이에 폭이 넓은 보행로가 이어진다. 길 양쪽에는 교목과 관목을 심었고, 원목의 그네형 벤치와 일반 벤치가 곳곳에 설치돼 있다. 입주민이 산책하다 잠시 앉아 쉴 수 있도록 동선을 따라 작은 휴게공간들을 조성했다. 화단 바닥에는 흙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도록 잘게 부순 나무껍질과 나무 조각을 넓게 깔아줬다. 잔디와 지피식물을 함께 심어 화단의 높낮이를 달리했다.



1 단지 내 두 동을 연결하는 스카이브릿지 조망카페 전경. 2 정원 안쪽에 위치한 동화 속 장면을 연출한 조형물. 3 단지 내 휴식공간. 4 단지 내 수목. /성채리 수습기자



운정3지구 642세대 공공분양 단지 동 연결한 스카이브릿지 카페 ‘눈길’

산책 동선 따라 휴게공간 곳곳에 배치 지형 활용한 공간 배치로 입체감 살려

다양한 높이 식물로 겹겹이 채운 화단 정원 사이 입체 조형물로 볼거리 더해 색다른 주제로 꾸민 색색깔 놀이터도

단지는 지형의 높이 차를 활용해 위쪽과 아래쪽 공간이 여러 층위로 나뉜다. 계단 아래 쪽을 바라보면 두 건물 사이로 다음 주동이 한 채씩 겹쳐 보인다. 가까운 건물과 먼 건물이 차례로 프레임에 들어와 입체감을 준다.

단지 내부에서 바라본 스카이브릿지는 외부에서 볼 때보다 한층 압도적으로 다가온다. 주동 사이 아래쪽에 서면 건물 외벽이 양옆으로 높게 솟고, 구조물이 머리 위를 덮는다. 단지 곳곳의 차분한 석재와 녹지가 안정적인 분위기를 만든다면, 스카이브릿지는 높이와 규모로 시선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한다.

단지 내 휴게공간은 ‘정원 속 작은 집’을 떠올린다. 일부 공간에는 ‘티하우스’와 ‘베스트라운지’라는 이름을 붙였다. 일반적인 아파트 정자처럼 지붕과 기둥만 세운 형태가 아니라, 흰색 틀과 삼각형 지붕, 넓은 유리창을 활용해 별도의 건물처럼 꾸몄다. 햇빛은 들어오면서도 나무색 천장 부분이 그늘을 만들어주는 형태다. 측면과 전면에도 유리창을 넓게 내서 안에 앉아 있어도 풍경이 보이도록 했다.

바닥은 주변 보행로보다 조금 높은 나무 데크로 설계했다. 흰색 구조물과 갈색 바닥, 짙은 나무색 천장이 따뜻한 분위기를 낸다. 휴게공간 주변에는 키 큰 나무와 낮은 관목을

여러 겹으로 심었다. 티하우스 바깥에도 테이블과 의자를 놓아 입주민이 자유롭게 공간을 이동하며 휴식할 수 있도록 했다.

산책로를 둘러싼 공간은 여러 높이의 식물로 촘촘히 채웠다. 원뿔형 침엽수와 소나무, 풀과 꽃을 겹겹이 배치해 작은 수풀처럼 보였다. 화단의 녹색 식물과 보라색의 꽃 사이로는 붉은 흙이 보인다. 정원 한쪽에는 흰색 동물과 어린이이, 커다란 꽃 조형물을 설치했다. 실제 나무와 야생화 사이에 익살스러운 장면을 연출해 조경에 색감과 볼거리를 더했다.

놀이터는 공간마다 색상과 주제를 달리했다. 어린이집 앞의 ‘장단콩나무’ 놀이터는 숲속 나무를 타고 오르는 듯한 구조로 만들어졌다. 바닥은 연두색과 짙은 초록색으로 주변 나무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파란 새를 형상화한 대형 놀이시설도 있다. 나무처럼 보이는 초록색 기둥과 동물 형상의 조형물을 활용해 동화 속 숲처럼 꾸몄다.

야외 운동공간은 근력운동 구역과 생활운동 구역으로 나뉜다. 한쪽에는 철봉과 평행봉 등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옆에는 인조잔디를 깔 아외 배드민턴장도 마련했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 극한 폭염에 프로야구 ‘올 스톱’…11일 오후 7시 재개
▲ 이정후, 5경기 연속 안타 ‘시즌 타율 0.303’… 팀은 텍사스에 완패 /사진 뉴시스

▲ 마린스키 전민철, ‘백조의 호수’로 韓 관객 만나…8월 14~23일
▲ “월드컵 매각 실수였다”… 사과한 인판티노, FIFA 회장직 유지

▲ 경찰, ‘홍명보 선임 의혹’ 대한축구협회 등 압수수색
▲ 크리스토퍼 놀란 ‘오디세이’의 흥행 물이…개봉 첫날에만 29만